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상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2월 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불교만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르침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마음이 맞으면 부처님도 부러워한다"고 했을까. 심지어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힘을 합한다(同惡相助)고 했다. 불화와 분규로 점철됐던 해방이후 현대불교사를 돌이보면 늘 '화합 차원'이 대의명분이 되어 일이 전개되고 수습돼왔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화합'이란 말이 교계에서 늘 되뇌이고 있다. 부처님의 가장 우선한 가르침인 화합에 그늘이 드리우고 있는 듯 하다. 가르침의 참뜻을 제대로 살필 때이다. 〈편집자 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너희들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증일아함경)

다중이 흩어지는 것을 보거든 능히 화합하게 하며, 남의 착한 일은 나타내 주고 남의 허물은 숨겨주며, 남이 부끄러워 할 것을 선포하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듣거든 발설하지 말며, 적은 은혜를 자기에게 준 자가 있거든 크게 갚기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원망을 하는 자에겐 항상 선심을 내며 원친(怨親)이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며, 꾸짖는 자나 와서 때리는 사람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모든 중생을 보되 부모와 같이 하라.
(우바새계경)

벗들이 다투면 때 맞춰 화해시키고, 허망한 말 전하기를 즐기지 않으면 후생에 친한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며 그 몸이 언제나 사람들의 어른이 되리.
(분별선악소기경)

만약 비구들이 서로 싸워서 각각 성내어 말다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일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그리로 가겠는가. 다툼이 가라앉으면 내가 마땅히 가리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비구들이여, 그 무리 중의 한 비구는 조용하고, 두쟁하고, 쟁론하여 서로 구검(口劍)으로 찌르면서 산다. 비구들아 이를 불화합중이라 한다.
〈중지부 경전〉

화합이란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고 상하가 화등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해 어기지 않으며 법을 받들어 금기한 바를 알고, 그 제도를 어기지 않고, 함께 많은 스승과 벗들을 보호하고 섬기며, 바른 생각을 견지하며 효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한다.
(장이함유행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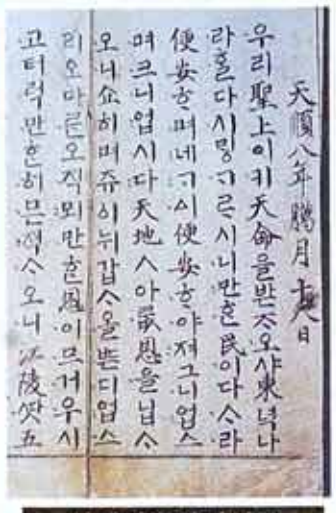
정당한 비구는 화합하고 환희하며 정론치 않고 유수(乳水)와 같으니라. 서로 친애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면 이를 화합중(和合衆)이라 설하느니라.
〈중지부 경전〉



금동관세음보살입상
백제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풍만한 얼굴과 고졸(古拙)한 미소로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익산왕궁리오층석탑
고려초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옥개(屋蓋) 양식은 백제석탑을 따르고, 탑신부의 결구(結構)와 옥개받침 수법은 신라석탑을 따르고 있다.



상원사중창권선문
왕실에서 사찰에 시주를 한 기록으로 초기 한글 서체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 첩(帖) 표장(表裝)에는 붉은 당초문(唐草文)이 있는 비단을 썼다.



통도사 대웅전
두개의 건물을 복합시킨 평면형으로 건물내부 기둥배치가 다른 건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

성보 4점 국보로

일제잔재 청산 문화재 재평가 '결실'

통도사 대웅전(보물 제144호)등 성보 4점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또 봉선홍경사비갈(奉先弘慶寺碑碣)·국보 제7호)이 봉선홍경사사적갈비(奉先弘慶寺事蹟碑)로 변경되는 등 3점이 원래명칭으로 환원됐다. 〈관련기사 6면〉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통도사 대웅전을 비롯 익산 왕궁리오층석탑(보물 제44호)과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보물 제140호), 금동관세음보살입상(보물 제195호) 등 성보 4점을 포함한 보물 6점을 국보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봉선홍경사비갈은 봉선홍경사사적갈비로, 원각사비(보물 제3호)는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로, 보광사중창비(보물 제107호)는 보광사대보광선사비(普光寺大普光禪師碑)로 명칭을 바꾸는 등 모두 7건의 문화재를 원래 이름으로 환원했다.

해인사대장경판고(海印寺大藏經板庫)는 일제가 문화재가치를 격하시켰다고 판단해 해인사 대장경판전(海印寺大藏經板殿)으로 개칭, 가치왜곡을 바로잡는다고 문화재위원회는 밝혔다.

이외에도 중초사지삼층석탑(보물 5호)등 보물 3점이 지방문화재로, 사적 8건이 지방기념물로 각각 하향 등급조정되는 등 모두 17건의 문화재에 대해 등급이 재조정됐다. 이번 문화재 등급조정 및 명칭변경은 올해초 문체부가 일제지정 문화재 503건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명우 기자〉

경북 직능단체 결성 '붐'

직지사 교사회·구미 택시기사회등 잇달아 창립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를 중심으로 경북 불교신행단체 결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9월 구미교사불자회가 창립된데 이어 11월24일에는 김천과 인근지역 초·중·고 교사들이 참여하는 직지사교사불자회가 창립됐으며 26일에는 구미운전불자회가 창립법회를 가졌다. 조만간 문경·점촌교사불자회도 창립을 서두르고 있어 지난 90년에 창립된 상주교사불자회와 더불어 제8교구를 중심으로 한 교사불자회연합도 태동할 조짐이다.

직지사가 교사불자회와 운전불자회 조직에 적극 나서는 까닭은 불교대구방송 개국과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의 결성 때문. 즉 달리는 법당이자 방송포교의 최첨병인 운전불자회와 청소년불자들을 이끌어 나갈 교사불자회를 조직함으로써 포교활성화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11월24일 직지사 설법전에서 창립법회를 가진 직지사교사불자회(회장 조능연)는 △년2회 이상 문화유적답사 △년3회 이상 교사 및 청소년을 위한 특강개최 △학교별 불교반 운영 △사찰불교학생회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1월 26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창립법회를 가진 구미택시운전불자회(회장 이춘도)는 △성지순례 △자비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대구=이윤호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에 인곡스님 선출

태고종은 지난 11월 26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제73회 정기종회를 개최하고 제17대 총무원장 혜초스님의 사퇴에 따라 인곡스님(전 사정원장)을 제18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종회에서 태고종은 1백6억1천3백여만원을 97년 예산으로 확정했으며 동방불교대정규대학 인가, 용궁사성역화사회복지법인설립등 사업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학교법인 태고학원 설립승인및 백산(전 종회의장) 스님 승정추대를 결의했으며 종단운영위원회법 종립학교운영관리법 직영사찰관리법은 차기종회로 이월됐다.

제2회 신행수기 공모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원고분량: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공모대상:불자면 누구나
△원고마감:1996년 12월 15일
△당선작 발표:1997년 본지 신년호
△시상내용
◇대상(유마상 · 1명):상패 상품(부처님조각 순금 메달 5돈)
◇우수상(본사 사장상 · 2명):상패 상품(〃 3돈)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상(1명):상패 상품(〃 3돈)
· 천태종 총무원장상(1명):상패 상품(〃 3돈)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1명):상패 상품(도서)
◇응모자 전원:도서출판 여시아문 도서 증정
△접 수: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공모 담당자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21세기 한국불교계를 이끌어갈 젊은 일군을 찾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의 새장을 열 새 인재를 모집합니다.

직 종	인 원	응시 자격
경력기자 수습기자	0명 0명	· 불교신자 · 4년제 대학졸업 · 예정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 · 면접 단, 경력기자는 2차에 한함
▲제출서류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이력서(명함판 사진 2매), 자기 소개서(원고지 5매 분량)
▲접수 및 문의 : 1996년 12월 18일(목)까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총무국 전화(02)737-8881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1996년 12월 21일(토) 오후2시 본사 사옥
· 인터넷 부다피아 검색 가능 (http://www.buddhapia.co.kr)
·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 유효

현대불교신문사

낙서에 멍드는 불교문화재 15면
불국사 창건자 김대성 아니다 6면
'古都경주' 화폭에 담는 두 화가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어반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차안에서 느끼는 TV, 영화, CD원음의 감동-
현대 카AV시스템!
비디오CD,TV, FM, AM, TAPE, 음악CD 6매 자동선곡까지-
국내 최초 일체형 현대 카AV시스템
오디오로만 만족하던 카오디오에서 최첨단 비디오까지-
현대 카AV시스템은 생생한 영화, TV에서 6장 CD자동선곡의
선명한 음악감상까지 자동차 생활에 최고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달릴때에는 원음의 감동으로, 머물때는 생생한 영상으로
배일타는 자동차 ·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가격인하
■카AV시스템 (HAV-41)
■비디오CD체인저(HVC-200A)
■CAR-TV(HLT-51)
· 장착비는 별도임
· 주의 : 운행중 TV시청은 위험하오니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시청하십시오
유직비디오
영화
오페라
현대전자
어반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 YUNDAI
대리점
● 경기도 이천시 이천무세국 사서함 1010호
전자사업본부 Tel:0336)39-6662/1

사 설

대선바람과 불교계

불교권에 대선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대한불교종단진흥회'라는 새로운(?) 단체가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 대법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여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교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작정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어 온 개혁불사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불교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어용불교·산중불교·치마불교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다.

불교가 전통종교로서 조선시대의 억불책으로 박해를 받아 왔고, 그후 민중과 사회의 고통을 함께 하는 종교의 역사·사회적 역할을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제시대에는 민족적 자각을 일깨워 준 일부 스님들을 빼고는 친일정책으로 더욱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해방후에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올바르게 계도하는데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개발독재와 군부독재시대에는 불교가 사찰령에 뿌리를 둔 불교재산관리법 등 불교관계악법으로 인해 관권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직도 불재법의 맥을 이은 전통사찰보존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불교의 인적·물적 자원이 '관리'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94년 3월 개혁불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역대정권이 불교도들은 당연히 여당의 표밭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과정에서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여러가지 불교사회단체가 결성되고,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증진됨으로써 양상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스님들을 중심으로 불교지식인층의 각성과 비판의식이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채 문민정부를 자칭한 현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정치권력에 의한 각종 불교탄압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여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불교계의 표밭다지기에 직·간접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각 정당이 불자회를 서둘러 결성하여 물밑공략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심(佛心)모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점에서 성급하게 정부여당이 권력지향적인 일부 불교도들을 앞세워 불교계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니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여당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의 기본정신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이상 종교·신앙을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불교계가 좀 더 자체개혁의 진통을 감수하면서 내적인 결속을 다져 나가야 한다. 각계각층의 활동에서 권력지향적이고 정치권과 영합하여 불교계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도록 사부대중이 노력해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정치권이 불심을 분열시킨다"라는 '남의 탓'만 할 때가 아님을 명심하자. 차제에 문중단위의 파벌과 계보의식에 따른 이합집산의 행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불교가 시민종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민족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떠한 외부적 탄압과 공작정치에도 굴함이 없이 민족종교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고, 민주통일정토의 구현을 위해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열린마당

97년 문화재관리 예산

문화재관리 예산이 1천1백74억원으로 편성됐다. 물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적극적인 문화재관리와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뤄내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70%가 성보… '불교만 지원' 시각 버려야

설조 〈조계종 관람료사찰위 위원장〉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중 70% 가량이 불교문화재다. 그러나 정부가 책정한 문화재 보호예산중 이들 불교문화재를 위해 쓰여지는 예산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문화재 보호예산 책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문화재 고수가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금껏 일괄성 없는 정부의 행정지원으로 문화재의 보호와 보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찰 문화재 보호와 보수비용 대부분이 해당사찰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왔다.

사찰의 문화재보호는 사찰만이 담당해야 할 몫은 아니다. 그 문화재는 우리민족의 유산이고 우리가 다함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찰 문화재 보수에 형식상의 지원을 해주면서 마치 사찰에 큰 특혜를 주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

또한 사찰의 문화재 보호와 보수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버리고 더 이상 문화재 보호에 방관자가 되서는 안된다.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민족만이 다가오는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다. 문화재는 단순한 유형물이 아니다. 그 속에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지혜 등 정신적인 무형의 유산이 숨쉬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는 일은 우리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 승격등 관리역량 강화대책 필요

박종웅 〈국회의원·문화체육공보위〉

97년도 문체부 예산이 96년 대비 38.4% 증가한 6천2백35억원, 이중 문화재예산은 29.2% 늘어난 1천1백74억원으로 전체 정부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는 적절하게 증액된 것 같다. 아직 예산심사 일정이 남아 있지만 거의 변동이 없을 줄 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재관리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관련 문체부도 문화재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인력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관리청 승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의 문화재관리국 체제와 규모는 문화재 보호 및 보존·수리, 문화재발굴 및 감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해인사 및 팔만대장경, 경주 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성보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자원이자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문화재 유출에 따른 흡수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문화·문화재 예산이 점차 확대돼야 한다. 선진국의 조건은 경제력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진정한 선진국을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임을 명심해야 한다.

29% 증가 '만족'… 문화재사랑 국민의식 절실

장진상 〈문화재관리국 예산담당〉

내년도 문화재관리 예산이 29.2% 증액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다소 부족한 감은 없지 않으나 그런대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인상률이라 여겨진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원들간의 문화재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시대적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화재관리에 따른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아도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예산부족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터라 이번에 인상된 예산은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충분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 총예산이 13%정도 늘어난 점을 감안, 이에 비교하면 비교적 많이 늘어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재관리 예산이 증가될 전망이어서 이번 인상률은 향후 문화재관리에 대한 청신호라 여겨진다.

내년 '문화유산의 해'에 투입될 예산은 문예진흥기금에서 따로 10억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문화재관리 및 보수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고려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쪽에서 보면 이번 예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당이나 석탑보수 등 각종 불교문화재에도 상당부분이 쓰여질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를 문화재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불교계, 그리고 온 국민이 문화재를 아낄 때 예산부족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도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지난해 9백9억보다 29.2% 증가한 1천1백7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문체부 총 예산이 37.6% 늘어나고 체육부문 예산이 135.9%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관리 예산은 문체부 예산 증가분을 다소 밑돌고 있는 셈이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증가된 문화재관리 예산 내역의 골자는 △문화재 보수·발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년제 대학과정의 국립전통문화학교 건립에 20억원 △인건비 1백26억원이며 나머지 1천28억원이 보수·정비 등 순수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이중 시·도 문화재 보수비는 6백43억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4백88억원보다 155억원이 늘어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었던 문화재관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 예산편성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느냐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재보수비가 원안보다 35억원 증가한 예가 있으며, 정부의

예산내역

'문화유산의 해' 불구 소폭 인상

지자체 보조금 요구 상당부분 묵살

방침 또한 문화재관리에 적극성을 띠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화재관리국 담당자의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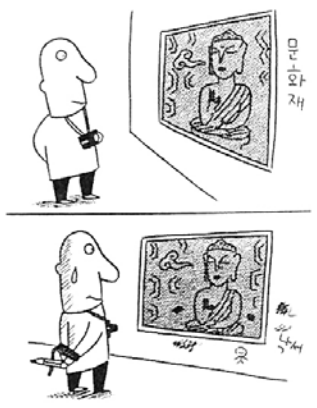
물론 이번 예산편성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이번 예산안이 지금까지 문화재관리 예산인상비율인 13%를 훨씬 넘어 최고의 인상률을 보인 것은 긍적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보조금에는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곳곳의 수많은 문화재들이 인력과 예산부족에 따라 관리부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내년이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견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1월 27일 성보 보존 및 관리에 8천2백만원, 폐사지 복원에 1천만원 등 내년도 문화재관리 예산을 전년도의 5천9백만원에서 54% 늘어난 9천2백만원으로 확정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목어

12월9일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개혁종단의 첫 선장으로 항해를 시작한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돌아보면 스님은 몹시 바빴다. 개혁이란 깃발아래 박수받을만한 일을 많이 시작했다.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월주스님을 상징하는 가장 두드러진 종책으로 꼽힌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표어를 내건 이 운동은 대승불교의 핵심인 자리이타(상구보리·하화중생)의 실천이기에 더욱 신선했다. 앉아 있는 불교가 아니라 서서 움직이는 불교를 표방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월주스님은 "수행자보다는 행정가의 이미지가 더 크다"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는 등의 지적도 받았다.

월주스님의 '2년'

이제 중요한건 남은 임기다.

나와 너를 분별하지 않고 자연까지 하나로 보는 '一心'의 밭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는 꽃을 피운다. '깨사운동'의 성공은 곧 한국불교가 제 몫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월주스님의 종무행정은 '깨사운동'으로 이어지고 그 결실에 역점을 둬야한다.

취임초부터 거론됐으면서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중앙신도회 구성의 건, 선뜻 나서서 풀지 못한 해인사 방장문제 등은 감점 요소다. 물론 비조직적인 한국불교의 체질 또는 고질병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월주스님의 추진력과 결단력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중은 바란다. 최근 사찰환경수호를 위해 본말사 주지스님 3천여명을 운집시켰듯이 단호함을 보일때는 과감히 보여줄 것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가 불교계를 넘보며 유혹 또는 책동을 하고있다는 설이 난무하다. 밖을 탓하기에 앞서 안을 먼저 단속하는데 월주스님은 나서야 한다. 어깨가 무겁겠지만 종단협의회 회장이므로 불교라는 이름이 실추되거나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계 전체를 보는 일도 해야한다.

남은 임기동안 산적한 일들을 순조롭게 풀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총무원장이 되도록 사부대중은 힘을 보태자. 그래야만 '깨달음의 사회화' 꽃이 처처에 피어날 수 있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깊은 물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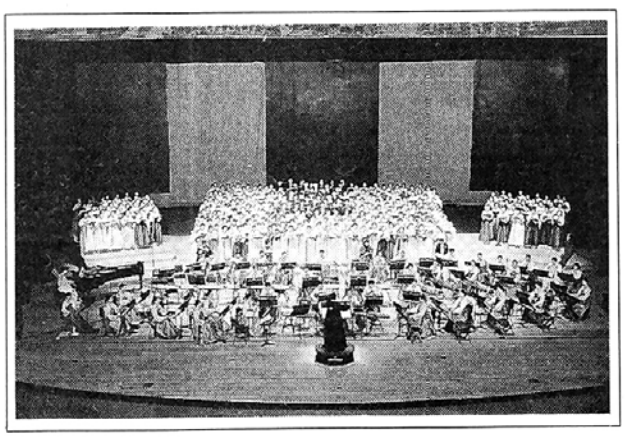
부족한 것은 시끄럽지만 가득찬 것은 조용하다. 어서석은 사람은 반쯤 채워진 물그릇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찬 연못과 같느니라.
〈숫타니파타〉

협찬 석왕사
주지 편백운
TEL.(0361)51-5040

연말 불우 이웃 돕기

'96 광주 불교 합창 예술제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광주지역 5개 사찰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음성 공양을 올립니다. 불자님의 가슴에 불음을 전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화합의 장으로 모십니다.



주최 : 광주불교 사암연합회
협찬 :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지사
후원 : 향림사, 증심사, 화엄사, 선덕사, 한마음선원

일시 : 1996년 12월 17일(화) 오후 7시
장소 : 남도예술회관(도청앞)

연 말 불 우 이웃 돕 기 '96 광 주 불 교 합 창 예 술 제

"조-태 묵은과제 매듭질터"

인터뷰 태고종 새 총무원장 인곡스님



태고종 제73회 정기종회에서 인곡스님(전 사정원장, 62세)이 제18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월성스님을 은사로 1952년 득도한 이래 총무원 재무부장·부원장·사정원장, 태고종신협 이사장을 두루 거친 신임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지난 11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시기 종단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무구조를 건실히하고 동방대 인가, 선암사 활성화, 조·태분규해결등에 전심전력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할 태고종의 현안을 무엇이라 보십니까.

▲선암사 용궁사 등 조계종과 분규가 진행중인 사찰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임기중에 어떤 형태로든 종결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빠른 시일내 조계종과 출세간의 화합법 테두리안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태고종의 재무구조가 취약함으로 인해 대사회적 역할과 종단운영에 침체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복안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경험을 통한 축적된 노하우로 건실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열악한 종단의 재무구조는 종단위상을 불안하게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총화체제를 통해 종도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열양상을 보였던 올해의 태고종상황을 반추해볼 때 종단의 화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종단의 구심점이 확실치 못해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거종단적으로 전종도가 단결하여 종단등록갱신등 조직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승가조직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종단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종무원 사찰단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각급 종무기관단위의 사회활동조직을 건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종단,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의 본모습을 찾아야지요.

-21세기를 맞아 불교발전을 위한 태고종의 종무방향을 들려주시지요.

▲올해내로 동방불교대학의 정규대학 인가와 태고총림 선암사의 활성화를 통해 21세기를 지향하는 종단교육불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대 사회문제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등 불교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김원우 기자

조직 재무구조 개선·종단화합에 만전
동방불교대 승격·선암사 활성화 추진

총무원장 전격교체 배경과 전망

보수집행부 출현 변화 예상

종도불신 증폭 종단위상 추락 '원인'

태고종 개혁의 깃발을 내걸었던 혜초스님 집행부가 1년만에 침몰됐다. 태고종은 지난 11월 26일 제73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새총무원장에 인곡스님을 선출하는 등 종단지도부체제를 출범시켰다.

당초 태고종은 지난해 종회에서 총무원장 서봉스님 후임에 혜초스님을 선출하고 40대 부장단을 임명하여 종단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개혁은 차치하고 종단위상의 급격한 하락에대한 종도들의 불신임이 팽배해져 종회를 앞두고 총무원장 부원장 각 부장들이 '타의에 의한 자진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종회를 통해 태고종 실권자들인 소위 7인방의 역학구도와 함께 지방종무원의 의지가 과감히 드러났다. 지난해 서봉스님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이어 '종회결의를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리라'는 종정유시로 일정기간 서봉스님 총무원장체제로 복귀하여 사표를 내고 이임시키는 수순을 밟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7인방의 미묘한 힘겨루기로 종단의 운영은 살얼음판과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여기에다 종회의 연기 등이 겹쳐지면서 혜초스님집행부의 핵심인 각 부장들이 인준도 안된 상태로 이어져 개혁의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자진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총무원장 후보로 나온 인곡스님과 춘명스님(봉서사 영산작법보존회 회장)이 18:17의 기권 1명이라는 극한 순간이 연출된 것은 지방종무원의 세력의 급부상을 의미한다는 시각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태고종의 분위기가 7인방 구도에서 지방종무원의 영향력 가세로 종단운영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곡스님의 선출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젊은 세력이 물러나고 보수성을 띤 종단집행부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태고종에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태고종은 어렵게 당선된 새 집행부가 종도들을 원만히 이끌고 가야만 하는 부담과 함께 개혁 보수를 떠나 종단재정등 산적한 문제해결이 큰 과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종립대학 개교, 재무구조확립, 분규사찰문제해결과 종단화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대차의 과제인 재무부실을 해결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종단현안들이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태고종은 명실상부한 제2 종단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원〉

종단협 '불간섭' 천명 일단 소강국면

'진흥회 파문' 어떻게 돼가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불교계 분파'를 우려해 해체할 것을 요구했던 대한불교종단진흥회(회장 일공)에 관해 일체 관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두 단체간의 갈등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종단협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지하(승가대학장) 법성(태고종 사회부장)스님과 진각종 락혜통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갖고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월주스님은 "한·일 및 한·중불교교류회의를 종단별로 나누어 맡는등 역할을 분담할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종단별로 추진하고있는 위원회 활동을 말고 종단협을 중심으로 뭉칠 것"을 재천명했다.

진흥회도 지난 11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단협에서 탈퇴할 뜻이 없으며 순수한 친목단체로서 활동할 것이다"고 밝혀 외형상 종단협과 진흥회가 화합의 모습을 조계종이 군소종단을 실질적으로 포용하려는 의지가 진흥회에 보여지지않는한 언제든지 종단간의 갈등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종단의 권익과 친목을 위해 모인 종단협에 또다른 친목단체가 존재하는것도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지적된다.

더구나 이번 종단협 회장단회의에는 진흥회의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천태종이 종단행사를 이유로 불참해 화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간담회서 역할분담등 화합 모색…일부선 미봉책 지적

활성화시켜 소수종단의 참여폭을 넓힐 것"을 밝혀 조계종의 독주에 반발하고 있는 진흥회를 포용할 뜻을 비쳤다.

참석자들도 이러한 제안에 대체로 환영하고 진흥회에 관해서는 "협의구성체의 해체여부를 강요하기보다는 일체 대응하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진흥회가 주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법회'를 계기로 촉발된 종단간의 갈등을 완전 치유하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종단협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의 오해가 우려되는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내년부터 개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엽 기자

시 론

과소비 망국病



임 희 섭
〈고려대 교수·사회학〉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근래에 와서 우리 경제는 고질적인 저생산과 고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국내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의 약화라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그리하여 올해들어 무역적자가 사상 최초로 200억달러에 육박하게 되고 종합국제수지가 5년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가 하면 총외채의 규모도 1,000억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무역적자·외채 날로 누적

이와같은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올들어 사치성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나 증가하여 경제전문가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9월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외제 가죽구두의 수입액이 1억5천만달러, 이태리제등 호화 외제 가구의 수입액이 2억1천5백만 달러, 외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2억4천만달러, 위스키 수입액이 1억3천만달러, 심지어 바닷가재 수입액도 1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물론 우리의 무역수지 적자나 외채의 급격한 증가가 모두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때문만이라고는 할 수도 없고 또 우리제품의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과소비풍조를 일으킴으로써 우리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아가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결과마저 낳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을 일으키는 이와같은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은 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호화 사치성 외제품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치성 외제품의 소비풍조는 이른바 일부 졸부층들의 '과시적 소비행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에 적지않은 신흥 부유층을 형성하였는데, 그들중 일부는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채놀이, 그리고 뇌물수수 등과 같은 지하경제에 기생하여 부를 축적한 '불로소득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땀흘려 돈을 벌기 보다는 손쉽게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과 그와 같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물질적 성공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고가의 외제 수입품을 소비하는 등의 과시적인 소비행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그와같은 신흥 졸부층의 과시적 소비행태는 우리사회에 과소비풍조를 확산시키고 향락산업을 번창시키는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에까지 번지고 있는 향락풍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기풍까지도 좀먹고 있으며 청소년세대의 도덕성 형성에도 해로운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제 사치품 수입의 증가와 과소비풍조가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때, 그렇지 않아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선진국경제에 더욱 종속되어 해외시장은 말할것도 없고 국내시장마저도 외국자본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물질보다 정신적 성숙을

이제 겨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진입한 우리 국민들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 국민들보다 더 흥청거리는 왜곡된 '과소비문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기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망국적 풍조이다.

우리는 어느 외국 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근면과 절제의 가치를 너무 쉽게 팽개치고 있지 않는지 모두가 반성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물질의 소유나 소비에 의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의 인간됨을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성숙에서 찾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생활 속의 불교 100

참 스승을 만나게 된 천재일우의 기회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지광이가 필요하고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는 목발이 필요하다. 눈을 뜨게 되는 날까지, 다친 다리가 다 낫게 되는 날까지는 -.

공부하는 사람에겐 스승이 필요하다. 참 나가 발현될 때까지는 -.

스승은 삶의 안내자이다. 길을 가는 이에겐 이정표(里程標)와 같다. 가령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하자.

우거진 넝쿨 숲, 위험한 벼랑·계곡이 길을 막을 것이고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맞닥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헤매이던 중에 등산로의 표지판을 만나게 된다면 비로소 그는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스승은 길을 잃은 사람, 길을 모르는 사람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초행길을 자세히 일러주는 지도라고 해도 좋다.

인생 길에서 스승이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아니, 없다. 자신만의 생각으로는 '내게 스승이란 없었다'라고 할진 모르겠으나 심지어는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라도 스승아닌게 없다고 하지 않던가. 장자(莊子)는 구불구불 휘어진 고목을 보고서 쭉 뻗어 재목 감으로 베어나간 나무와 비교하며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했다. 또, '모난 돌이 정(釘)을 맞는다'는 속담에서 '모난 돌'은 분명 삶의 교훈감이다.

그럴진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찌 스승이 없다 하랴. 문제는 스승을 스승으로 알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에 있는 것이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스승으로 받아들일 줄 안다면, 거기서 삶의 교훈을 읽을 줄 안다면 따로 스승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은 이미 일체 경계를 스승으로 삼고 있으니 공부가 무르익을 대로 익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인생길에서 장님이나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겐가 길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진정한 스승인가. 어떻게 해야 참 스승을 만날 수 있는가. 이왕 스승을 찾을 바에야 바른 스승을 만나야한다. 자칫 장님이 장님을 안내하는 꼴이 되어서는 그보다 더 한 낭패가 없기때문이다. 원효선사가 대안대사를 만났듯이, 혜가대사가 달마대사를 만났듯이 이왕이면 참 스승을 만나야 한다. 헌신과 믿음을 바칠만한 스승- 밖으로 그런 스승을 만난다면 내 안의 스승을 만나는 길도 빠르다. 공부하는 이의 큰 복이기도하다.

진정한 스승은 이름이나 외양을 '나'로 내세우지 않는다. 그 무엇으로도 나를 삼지 않는다. 학식이나 덕망, 신분이나 명예, 또는 무슨 능력 따위를 상표로 내세워 남을 이끌지 않는다.

진정한 스승은 다만 실천으로써 남을 가르친다. 고기나 빵을 주는 이가 아니라 낚시질 하는 법, 빵 굽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내 나무의 뿌리에 생수를 부어서 나를 푸르르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인생길에서 직면케 되는 모든 난관마다에서 그것을 풀어헤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사람이다. 댓가를 바라지 않고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분이다. 고로 스승에게 바치는 믿음과 헌신은 자연스럽다.

길을 잃은 이들이 이정표를 믿고 바른 길을 찾아가듯이 공부길에서 스승을 만나게 되면 스승을 믿고 스승에 귀의해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 중에 선지식을 만나기란 더더욱 어렵다고 한다. 내게 길을 일러주고 내 나무의 뿌리에 생수를 부어주는 스승을 만남에 있어서야 그것을 어찌 천재일우라 하지 않겠는가. 스승에 대한 믿음과 헌신은,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는 바른 수행은 곧 보은이기도 하다.

사람 값을 하는 보은인 것이다.

협찬 : 주 인 공

법회 안내

각명사(02)387-3510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정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만덕사(062)652-4920

연등회법회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칠성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문빈정사(062)222-2202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인등기도 매월 7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5시
합동정진법회
매월 넷째주 일 오전10시

관음사(062)223-7666

거사림법회 매월 월 오후7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6시30분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수타사(0366)33-6611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석왕사(0361)51-5040

일반신도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강원불교대학강좌
매주 화 목요일

보문사(0361)57-7070

춘천불교청년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1일 오전10시

청평사(0361)54-1092

일반신도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정법사(0361)54-7194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삼화사(0394)34-8313

중고등부법회
매월 둘째 넷째 주 일 오전11시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원각사(0394)33-000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인등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신중기도
매월 1~3일(양) 오전10시
철야기도 매월 24일(음) 오후8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역경후원회 '사은법회' 개최



월운 역경원장스님은 오는 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역경후원회 사은법회를 봉행한다.

사학육성 공로 봉황장 수상



혜성 청담종합고등학교 명예이사장스님은 지난 11월 26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로부터 '96 사학육성공로연공상 봉황장을 수상했다. 혜성스님은 부실학교였던 청담종고를 인수하여 27학급의 대규모 학교로 발전시켜 사학발전에 기여했다.

천일지장보살 기도 입재



지원 삼보사주지는 지난 11월 25일 천일지장보살 기도를 천도재와 함께 입재했다. 이번 기도에서 경기도 양주에 들어설 청소년 수련원과 노인복지 치매센타 건립을 발원했다.

경기 노인복지시설 협회장에



각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스님은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에 피선됐다.

파주 관음양로원 위문



지용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사회복지회장스님은 지난 11월 24일 동문회원 50여명과 파주 관음대비양로원 위문공연을 다녀왔다.

상담안내 지혜의 전화 개설

우학 영남불교대학 학장스님(관음사주지)은 지난 11월 18일 영남불교대학내에 현대인들의 고민과 정신건강 등에 관한 일체 상담을 위한 '지혜의 전화'를 개설했다.



출판공로 대통령 표창받아



윤청광 출판문화협회 부회장(동국출판사대표)은 지난 11월 27일 출판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처음 제정 시행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차문회원' 가을학기 종강식



감승희 한국차생활문화원장은 오는 7일 오후3시 성북동 문화원에서 가을 학기 종강식을 갖는다. 이번 종강식에서는 귀순자 이순옥씨의 '북한의 실생활과 여성의 생활상'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유엔군 모범장병 표창식



황경환(사)국제피플투피플한국본부 총재(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신도회장)는 지난 11월 29일 '96연례대회 및 유엔군 모범장병 표창식을 개최했다.

BBS 보도부 부국장에



김양일 전 BBS 방송위원은 지난 11월 25일 BBS 보도부 부국장(국장 직무대리)으로 임명됐다.

"동료부터 착실히 교화…회원 배가"

구미택시운전불자회 초대회장 이 춘 도 씨



구미택시운전불자회가 지난 11월 26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23명의 회원으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초대회장으로 이춘도씨(43)를 선임했다.

"크고 거창한 것보다 작지만 소중한 것부터 해나갈 작정입니다. 주변의 동료들부터 한분 한분 포교하겠습니다."

이회장은 구미지역 운전기사 1천2백여명중 운불회에 가입한 불자는 얼마되지 않지만 회원배가 운동을 통해 모임을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차안에 염주가 걸려있는 동료들부터 포섭한다는 계획이다. 운전경력 15년의 이회장은 운전기사나 그 가족들은 한번 뭉치면 어느 단체보다 결속력이 강하다며 장래를 낙관했다.

"참된 신행활동을 통해서 대구지역불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구미운불회의 창립은 직능별 조직이라는 장점외에도 불교대구방송의 개국에 발맞춘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불교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회원 대부분이 남자란 점에서 우바새조직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운불회는 매월 첫째 화요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정기법회를 가질 예정이며,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불교대구방송 교통통신원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른 봉사단체를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활동의 폭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체계적인 청소년 포교활동 펼터"

직지사 교사불자회 초대회장 조 농 연 씨



"교사불자회가 청소년 포교활동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일천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천과 인근지역의 30개 초중고교 96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직지사교사불자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조농연씨(48·김천중앙중학교 과학주임)는 안으로는 자기수행을, 밖으로는 청소년포교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회장은 중산중학교 재직중이던 지난 92년 청암사주지 지형스님이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때 세운 청소년포교에 대한 서원을 교사불자회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게 됐다. 불교가 전공과목은 아니지만 배워가면서 청소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는 조회장은 교사생활을 통해 익힌 교수방법을 십분 발휘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특히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 직지사등과 협력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포교 및 신행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당면과제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학교를 참여시키는 것. 현재 이지역 초중고교의 약 3분의2만 가입한 상태다.

"사회가 혼탁해질수록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하는 조회장은 "인간의 성품을 깨닫고자 하는 불교야말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적합한 수행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68년부터 교직에 몸담아온 조회장은 내년봄 교감으로 부임할 예정으로 있다. 〈윤〉

게시판

모임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송년의 밤=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이성호)는 오는 12월 10일 오후6시 남산 타워호텔 신관 대회의실에서 96년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02)923-6676

순례 구도법회=조계사대승불자회는 오는 21~22일 해남 대흥사와 장흥 보림사로 구도법회를 떠난다. 출발은 오는 21일 오후3시 조계사 앞. (02)736-4848

문화유적답사=터사랑은 오는 7~8일 무박 2일의 일정으로 남원 실상사, 경남 함양 산청으로 문화유적을 답사한다. 출발은 오는 7일 오후8시 지하철 안국역 앞. (02)725-1284

강좌 주부노래교실=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노래에 관심있는 주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1시, 3시 주부노래교실을 연다. (032)325-2161

스님과 함께하는 스키=선재이벤트(실장 이성훈)는 오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차에 걸쳐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스님과 함께하는 스키여행을 떠난다. 장소는 강원도 평창군 보광 피닉스파크. (02)209-1506

꽃꽂이=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안)은 매주 금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꽃꽂이교실을 연다. (042)633-1141

모집 김장 담궈주기=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담궈드리기 후원자를 모집한다. (0551)31-8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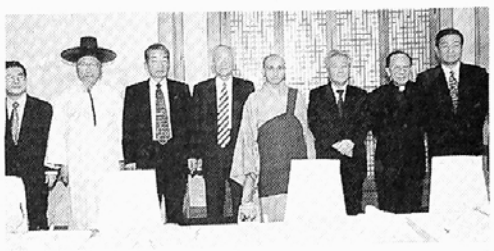
간사 2명=상설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과 세계기아/ 질병/아동/구제기구 '이웃을 돕는 사람들'에서는 함께 정을 나누며 희망을 키워갈 성실한 실무자를 찾고 있다. 모집인원:남자 2명, 자격: 전문대 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02)945-4200



관음종 대청어린이집 개원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위탁운영하는 구립 대청어린이집이 지난 11월 26일 개원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홍파스님을 비롯 정대철 국민회의 부총재, 김갑용 강남구청장, 홍승희 강남보육위원장, 박용녀 강남어린이집회장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대청어린이집은 건평 99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보육실, 유희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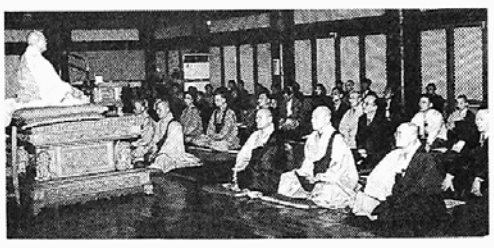
종교계 대표 · 방송3사 사장단 오찬

우리 사회 청소년의 주변환경 악화를 걱정하는 종교계 대표와 방송3사 사장단 오찬이 지난 11월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있었다. 이날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회장, 천도교 김재중 교령,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동은 회장, 문체부 이경문차관, 홍두표 KBS, 이득렬 MBC, 윤세영 SBS사장 등이 동석했다.



부불련 낙동강 을숙도서 수륙대재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지난 11월 21일 낙동강 을숙도에서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연등대법회 및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삼광사 주지 춘광스님, 문정수 부산시장, 최형우 신한국당의원, 이한동 신한국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한 법회에서는 환경결의문을 채택하고 위천공단설립과 금정산과 백양산 훼손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불자회 화계사서 첫 정기법회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는 지난 11월 23일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부회장 배재욱 사정비서관 등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깨달음과 중생구제가 불자들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매일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금융단 불교연합회 전국 합동법회

제16회 전국금융단 합동법회가 지난 11월 23일 서울은행 본점 4층 강당에서 봉행됐다.

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가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한국은행 국민은행 상업은행 등 15개 금융기관불자회의 1백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남 장성 묘현사 묘련스님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주제로 법어를 했다.

겨 울 수 련 회 원 모 집

원기스님

선禪 단斷 식食

20여년동안 2천여명의 수련회원을 지도하면서 「선단식은 만병통치가 아니고 병들게 했던 정신적·육체적 요인을 제거하는 동기를 부여, 제 2의 고품격 삶을 추구케하는 참수련법회일 뿐이다」 - 원 기 -

- 정 신 : 나약한 정신, 불면, 우울, 얼등감, 신경성질환
- 육 체 : 위장, 소화기 계통, 변비, 피부, 약물중독, 체질개선, 비만

	수 련 기 간	수 련 내 용
6일	1일 감식 3일 단식 3일 보식	참선 단전호흡 단식원리
10일	〃 5일 단식 5일 보식	식이요법 선체조
14일	〃 7일 단식 7일 보식	풍욕 산책
20일	〃 10일 단식 10일 보식	불교 교리등
	일 반 단 식	완전단식 수련지도

▤ 선단식 수련 지도에 관심 있는 스님도 모집합니다.(초보가능)

완전독소제거, 육각형 오행음양 황토찜질방
쑥뜸 : 뜨겁지 않고 흉터가 없는 왕뜸 비방.

공 개 !

◈ 수시상담 접수중 ◈ 겨울 방학 선착순 20명

본원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1225번지

☎(0552)87-8762,4476

성 관 음 사

한마음 단식 수련원

玉黃土의 氣가 온몸으로 스며든다!

통상산업부 전통기술교류위원회 온돌난방분야 위원이 발명한

황토 옥 방석 · 베개 · 산후조리용보료는 이런분에게 좋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6-7633 실용신안특허출원 96-5459)

1. 부인병, 소아병, 치매, 뇌질환방지,
2. 신경통, 스트레스성두통, 숙취 및 화장독제거
3. 혈액순환촉진 — 성인병환자에게 좋습니다.

(☞ 문헌자료: 본초강목, 산해경, 진남자기록에서 발췌)

■ 전국 대리점 모집

성공을 보장하는 확실한 사업에 동참하실 동반자를 모십니다.

☞ 자 격

1. 전국 시, 도에 점포사무실 10평이상 소유하신분.
2. 보증금 1,000만원이상 (보증금의 90% 한도내에서 물품을 공급함.)

☞ 특 전

1. 본사의 97년도 사업실시 예정인 황토치료방 체인점 개설시 우선권을 부여함.
2. 확실한 상권보장 및 독점공급권 부여

옥황토를 통해 국민 건강에 일조하는

보 신 산 업 주 식 회 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51-1번지

문의안내 : ☎ (042)525-7854

"86살 나이 무슨 상관…늘 현역"

산문밖의 禪

성암도서관 김근수 관장



동트기 전 도서관 앞길 청소로 하루 시작
"성심·근면·성실 지팡이 삼아 부끄럼없이"
잡지 창간호 2천여종 등 장서 6만여권
우리말·글 지키기 평생 헌신한 국문학자

이곳이 출입문일까 싶었다. 하얗게 녹이 슬고 기울어진 새시문을 열고 들어가자 퀴퀴한 종이냄새와 함께 책들이 다가왔다. 성암(誠巖)도서관(762-6991). 한국학관련 서적을 비롯 잡지들이 복도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사설도서관이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대학로 '먹자골목' 국민은행 건너편 3층 건물. 장서가 6만여권에 이른다. 이 가운데 3만권은 한국학 관련 서적. 반은 잡지이다.

이곳의 주인 김근수 박사. 1910년 함남 단천生이니까 올해 86세이다. 김박사는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나와 36년 경성외국어학원 교원으로 강단에 서기 시작, 그후 전북대 동국대 수도여사대, 정년퇴직 때까지 중앙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현역이다. 전공은 한국학과 잡지학. 출퇴근하고 강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이제야 홀가분히 학자의 길을 걷는 것 같다.

동트기 전 일어나 도서관 앞길을 말끔하게 쓰는 일로 일과를 시작한다. 그는 이곳을 '학(鶴)의 집'이라고 부른다. 또다른 명칭은 한국학연구소, 성암잡지도서관. 그는 이곳의 소장이며 관장이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강의실을 일터로 삼았던 데서 이제는 개인연구실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 여전히 예전처럼 책을 읽고, 골똘히 생각하고, 논문을 쓴다. 찾아오는 사람을 맞아 도서관 안내하고 책이야기를 한다. 가끔은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마다않고 가서 강의도 한다.

"옹(翁)이란 호칭은 90 가까운 사람에게나 붙여야 맞는 것이지. 나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늙은이 취급해서는 안되지. 소장님이나 관장님으로 불러야지. 아니면 내가 문학박사이니까 박사님, 이렇게 불러도 좋지."

몇 년전 다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는 노구이지만 형형한 눈빛과 또렷한 목소리는 나이 가늠을 어렵케 한다.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잡지 가운데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전권 소장본만도 70여종이다. 창간호만 치자면 무려 2천여종. 이것과 더불어 살고 있으니 '잡지박사'란 별칭도 좋다고 했다.

"과거의 잡지는 영리 목적보다는 동인지 성격이 강했어요. 이 때문에 근대화의 선구자 역할, 사회목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의 잡지는 대의를 생각지 않고 팔기 위한 잡지가 많아요."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의 잡지와의 인연이 굴곡많았던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보성전문학교를 나와 경성외국어학원에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던 김박사는 조선어 과목이 폐지되자 우리글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이때부터 우리글로 된 잡지와 신문 문서 수집에 나섰다.

소장본중에 가장 애착을 갖는 것은 〈개벽〉이다. 일제하에서 신문지법에 의해 1920년 창간되어 26년 통권 12호로써 일제의 탄압으로 폐간된 종합월간잡지로 일제치하 우리 언론잡지계의 대표적 위치를 차지한 잡지였다. 소지만해도 잡혀갔던 '불온서적'이었다. 이후 출판법에 의거해 속간을 거듭하며 72호까지 내는 동안 발행금지 34회, 정간 1회, 벌금 1회, 발행정지 1회 등 숱한 탄압과 역경을 헤쳐왔다.

"〈개벽〉은 내가 거의 대부분을 입수, 소장하고 있어요. 이 잡지 69호에는 이상화의 저항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실려 있었지요. 해방 후 우리 국어교과서에도 실렸는데, 원래 발표된 시와 내용이 달랐어요. 〈개벽〉을 근거로 이를 바로 잡았지요. 지난 81년에는 〈'개벽'지 압수원본선집〉을 발간해 조금이나마 한을 풀었습니다."

그는 한국학 관련 책자와 잡지 모으기에 매달렸다.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과 책 모으는 일이 그의 한평생이었다.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자화상'이란 자작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 몸은 누가 뭐라 해도 굉범 그것/ 구석박이에 서 있는 바윗돌 그것/ 오직 다만 지성일관(至誠一貫)/ 성실 성의 근면 성실을 지팡이 삼아/ 최후의 그날까지 걸어가려는/ 한 이름없는 나그네// 아무리 바윗돌일 망정/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보아/ 아무런 부끄럼없이 거리낌없이 걸어가려는/ 한 이름없는 나그네."

책더미 한켠에 놓여진 그의 책상위로 한낮의 햇살이 내려앉는다. 그의 눈빛에 소년같은 미소가 어린다.

"다시 태어나도 책 모으는 일과 한국학 연구의 길을 걷고 싶다"는 말로 잠깐의 침묵을 걷어낸 그는 "책은 골동품이 아니야.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안해"라며 목소리를 돋군다. 그리고는 또 한편의 자작시, '젊은 학도들에게'를 외운다.

"물들새라 묻을새라 나라의 아들 딸들아/ 아무리 이 누리가 더럽고 구릴지라도/ 너희는 캄캄한 밤에/ 빛이거니 횃불이거니// 바르거라 참되거라 나라의 아들 딸들아/ 아무리 이 누리가 거짓많고 비뚤지라도/ 너희는 오는 날에/ 주추거니 기둥이거니//…"

한국잡지학회 회장, 한국학연구소 소장, 성암잡지도서관 관장. 명함만 그럴듯한 게 아니다. 학술지 〈한국학연구〉를 41집까지 냈다. 12월초에 다음 호를 펴낸다. 〈한국잡지연표〉 〈한국잡지사연구〉는 최근에 펴낸 것들이다. 요즘은 〈잡지사전〉의 원고를 쓰느라 기자들이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진다. '혼민정음' 서문의 틀린 해석을 바로잡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현역이다.

정성운 기자

악연은 삼줄처럼 질기다는데…

문 '나쁜 인연은 질기기가 삼줄같고 좋은 인연은 부드럽기가 고요히 타오르는 불과같다. 삼줄은 불을 묶을 수 없으나 불은 삼줄을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말에 대해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김도원·경북 문경시 농암면〉

답 늘 말씀드리지만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습니다. 고로 부처님께서도 모든 악의 인연을 짓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자재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참성품을 깨우쳐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무애자재한 마음의 경지를 터득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병고액난이 거푸 찾아든다면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부는 커녕 내게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칫 잘못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뿌린 씨는 결코 썩지 않아서 언제고 내가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미숙한 사람들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나쁜 환경보다는 좋은 환경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좋든 나쁘든 다가오는 일체의 경계가 다 나를 공부시키는 재료이고 계기이긴 합니다만 질문하신 분도 좋은 여건에서 더 공부가 잘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공부를 하는데는 한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생각 바르게 내면 그 공덕은 무한합니다. 경전에 보면 '사구게' 하나라도 잘 수지하고 독송하면 그 공덕이 칠보로 수미산을 장식하는 것보다 크다하였습니다. 일념만년이란 말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바로 공부의 인연을 말합니다.

세간살이에서 선업을 쌓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만 공부길에 한 생각 바르게 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적하신 대목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참선 잘못하면 미친다 하는데

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성본래불을 마음으로 호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르면 번뇌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또 참선을 잘못하면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기는지요. 참선에 열중하려 하는데 그것도 욕심인가요.
〈박효순·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답 예전부터 염불을 통해 공부하는 길을 제시하신 분들이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염불이란 입으로 읊조리는 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거야 구두선에 불과하지요. 참다운 염불이란 바로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를 관할때 제대로 되는 것이지요. 입으로만 외니까 외다가 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겠지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다 나를 형성시킨 근본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인가를 보라는 것이고 나온자리에 다시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불하다가 번뇌망상에 사로잡힌다고 하는데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가 하듯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놈은 누구인가를 관하면 그건 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하는 놈도 실은 그놈이니까 거기다 되놓아보라, 되놓고 네놈이 도대체 누구냐하고 몰고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참선을 많이하는데 그것이 욕심아니냐 할게 아니라 참선하려는 생각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그것마저도 그 자리에 놓아버릴 일입니다. 참선을 하고싶다 했다가 이게 또다른 욕심이 아닌가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망상이지요.

늘 몰락 놓아라 하는 것은 사량을 쉬고 오직 관하라는 말입니다.

참선하다가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선을 통해 놓고 쉬지를 못하고 오히려 또하나의 상을 짓고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사는 집으로 비유한다면 빈 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자꾸 형상에 매달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이 빠진 것처럼 되어서 마치 빈 맷돌을 돌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선사의 말씀이 네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요 주장자가 없다면 네 주장자를 빼앗으리라 했답니다.

그렇듯이 내 생명의 근본 주장자를 잃고 남의 주장자를 찾다보면 그만 빈 집같이 되어버려서 온갖 짐승이 들락거리고 벌레들이 들어와 사는 그런 집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미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공부를 하시려거든 나의 주장자를 굳게 믿고, 일체는 거기서 벌어지고 거기로 든다고 믿어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에서 사량분별을 짓지 말고 닥치는대로 놓고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주장자,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아상을 말하는 줄로 알아 그만 아만심만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장자다, 주인공이다 하는 것도 이름하여 그렇다는 것인데 이름이야 뭐가 되었든 나의 근본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근본성품을 굳게 믿고 일체를 놓고 맡기고 관하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2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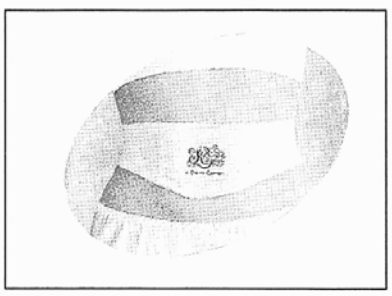
본교: 511-1080, 511-2026~8, 광주 삼복서점 :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제일서림: 424-0801, 대전문경서적: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림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홍지서림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6, 팩스:511-1080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국보로 재지정된 통도사 대웅전의 돌계단 연화문(蓮華文). 돌계단 층계석과 소맷돌에 새겨진 연화문은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아 매우 정교하다.

올해초 일제지정 문화재 503건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보물 6건을 국보로 승격시키는 등 모두 17건의 문화재에 대해 등급을 조정하고 7건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유산 바로세우기

성보문화재 재평가 의미

이들중 국보로 승격된 성보로는 익산왕궁리 오층석탑(보물 제44호)과 통도사 대웅전,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보물 제140호), 금동관세음보살입상(보물 제195호).

단층 기단 위에 세워진 석탑인 익산왕궁리 오층석탑은 백제시대 건립된 익산미륵사지석탑의 결함을 보완, 그 조형형식을 답습해 창작된 탑이라는 점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통도사 대웅전의 경우는 구조의 특이함과 종교적 정신 배경에서 볼 때 국보급 가치가 인정된다는 관단에서 금강계단을 포함해 국보로 재평가됐다. 또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은 세조와 세자 및 문신 그리고 학승들의 수결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오래된 한국서적이며 보존상태도 완벽하다는 점에서 마땅히 국보로 지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제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세음보살입상은 오랜 전통과 고졸(古拙)한 미소가 내면의 정신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 국보로 승격해도 손색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명칭이 변경된 봉선홍경사비갈(奉先弘慶寺碑碣)은 비문에 사적갈비(事蹟碣碑)로 되어있어 봉선홍경사사적갈비(奉先弘慶寺事蹟碣碑)로 바뀌었으며, 원각사비(보물 제3호)는 비문에 '대원각사'(大圓覺寺)라는 명확한 기록이 있어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로 환원됐다. 보광사중창비(보물 제107호) 역시 비의 주인공이 보광선사이므로 이름이 삽입돼야 마땅하다는 관단에서 보광사대보광선사비(普光寺大普光禪師碑)로 개칭됐다.

문화재위원회는 또 해인사대장경관고(大藏經版庫·국보 제52호)의 경우 일제 강점기때 한국의 정통정신을 말살하려는 정책에 따라 해인사경판전을 물품창고와 같은 뜻의 경관고로 지칭해 성보문화재의 격을 격하시켰다는 관단하에 해인사대장경관전(海印寺大藏經版殿)으로 명칭을 변경, 문화재 가치 왜곡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초사지삼층석탑(보물 제5호)은 기단부와 탑신의 비가 차이나는 등 조형적 측면에서, 안동안기동석불좌상(보물 제58호)은 통일신라시대로 보고 있는 제작연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상주복룡리석불좌상(보물 제119호)은 보물급으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각각 지방문화재로 재조정됐다.

이들외에도 용감수경(龍龍手鏡·보물 제130호)과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靑華白磁鐵砂辰砂菊花文甁·보물 제241호)이 각각 국보로 승격했으며, 서울 남대문(국보 제1호)이 서울숭례문(崇禮門)으로, 서울동대문(보물 제1호)이 서울흥인지문(興仁之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우〉

통도사대웅전 구조 특이·높은 종교가치 인정
왕궁리오층탑 익산 미륵사지석탑 결함 보완
最古의 한국 서적·보존성 양호 **상원사권선문**
오랜 전통미·고졸한 미소 일품 **금동관음입상**

"불국사 창건자 김대성 아니다"

신라문화硏 학술회의서 주장

최근 석굴암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보존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불국사를 다각도로 재조명하는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 주최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학술회의가 오는 6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홍광표교수(동국대 조경학)는 '불국사 대웅전 공간구성의 조형적 의미'를 주제로 불국사 중심공간의 중심점이 석가-다보 양탑을 연결하는 동서축과 자하문-대웅전-무설전을 잇는 남북축에 교차점에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홍교수는 불국사가 탑으로부터 금당으로 조영의 중심성이 전이되어 가는 탑·금당병립형 사찰임을 설명하면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계속 중첩되면서 외부로 확산되는 원과 정사각형의 각 번에 대웅전, 자하문, 석가탑, 다보탑 등과 같은 건축선들이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불국사가 탑중심형의 사찰과는 달리 중심성이 어느정도 금당으로 전이된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조영의 중심성은 여전히 탑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규범적 틀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결과도 내놓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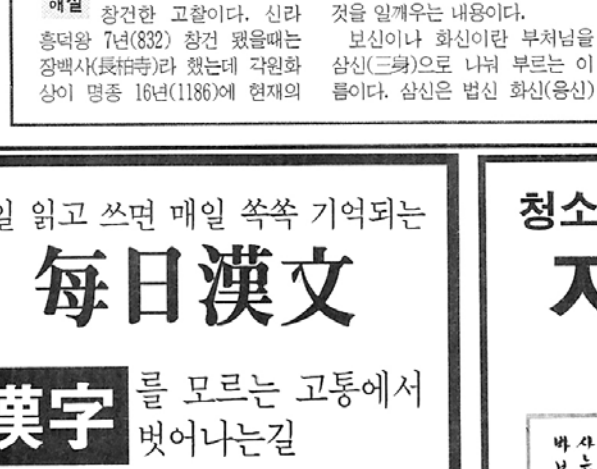
박남수씨(국사편찬위원회)는 '김대성의 불국사 조영과 그 경제적 배경'을 통해 불국사는 신문왕대에 김대성이 창건한 것이 아닌, 문무왕 말년, 신문왕 원년 무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박씨는 불국사의 조영이 통일신라시기에 적어도 세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8세기 중엽 김대성의 조영 이전에 그 전신이 되는 사찰이 비로전지에 있었다는 지난 68년 불국사 발굴조사결과의 추론과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 소전(所傳) 대웅전에 봉안된 석가주존 등 5구상의 복장기 내용에 주목하고, 〈삼국유사〉 '고향전'(古鄕傳)에 전하는 신문왕대에 김대성이 창건했다는 내용은 당시 금산사, 봉은사 등의 개창을 창건으로 기록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불국사 개창을 창건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강근교수(경주대 문화재학)는 논문 '불국사의 불전과 18세기 후반의 재건역(再建役)'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불국사 창건의 역사적·불교사 고찰의 범주를 벗어나 사찰 경제가 어려웠던 조선시대 후반기에 이뤄졌던 사중의 중창노력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교수는 1750년과 1765년에 각각 재건된 극락전과 대웅전에 주목하고, 이 가운데 8세기 창건의 하부구조 위에 18세기 중창의 상부구조를 세운 독특한 양식의 대웅전은 그 내외장엄이 18세기 불전가운데 단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국사의 두 불전(대웅전·극락전)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히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무왕 말년~신문왕 원년 최초 불사
'조선후기 중창' 역사적평가 받아야



◇사바세계에 우뚝선 불국세계의 상징 불국사. 최근 불국사의 의의를 재평가하려는 노력이 학계에서 일고 있다.

한명우 기자

남장사

보광전

報化非眞了妄緣(보화비진료망연)
法身淸淨廣無邊(법신청정광무변)
千江有水千江月(천강유수천강월)
萬里無雲萬里天(만리무운만리천)

보신과 화신이 참이 아닌 망연된 인연인줄
요달(了達)하면
청정한 법신은 가이 없이 넓고 넓네
천갈래 강마다 물이 있다면 천강마다 달이 떠 오르고
만 리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청청 하늘은 만리에 뻗네

해설 남장사는 진감국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신라 흥덕왕 7년(832) 창건 됐을때는 장백사(長柏寺)라 했는데 각원화상이 명종 16년(1186)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 지으며 남장사(南長寺)라 부르게 되었다.

보광전의 주련은 보신불이나 화신불만이 우리와 인연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청정한 법신은 법계 어디에도 가득해서 우리가 항상 접할 수 있는 곳에 계신다는 것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보신이나 화신이란 부처님을 삼신(三身)으로 나눠 부르는 이름이다. 삼신은 법신 화신(응신) 그리고 보신을 말한다.

보신이란 과보와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 불신을 뜻한다. 화신이란 응화신 변화신 응신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형상으로 변화하는 불신을 의미한다. 법신은 자성신(自性身), 법성신(法性身)이라고도 하는데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 주련은 이같은 불성의 형상이 진정한 인연이 아니고 우주에 가득찬 법성이 중요한 인연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보다는 우주법계에 두루 존재하는 법성을 깨우쳐 아는 것을 참된 인연(성불의 인연)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천강에 하나의 달이 비치는 것이나 구름한점 없어 만리를 푸르른 하늘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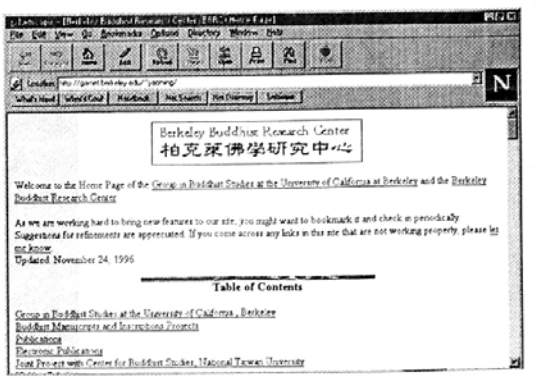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형상아닌 법성을 보아야 참된 인연"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버클리 불학연구소

버클리大(캘리포니아, 美)에서 제공하는 학술 사이트인 '버클리불학연구소'는 인터넷 테크놀리지인 '웹'을 이용 지리적 여건을 초월해 불학연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불교연구를 꾀하고 있다.

이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교학술 관련 정보에는 △불경·비문 연구 △불교서적(버클리대 刊) △불교관련 회의자료 △관련 사이트 링크 △불교연구소(버클리大) 등이 있다.

'불경·비문 연구'에서는 국제인도학회에서 제공하는 원시경전의 전산본과 CD 타이틀 〈방산석경비각집성〉(中國房山石經碑刻集成)에 관한 정보를 각각 알려주고 있다.

'불교서적'에서는 버클리大에서 출간한 불교관련 서적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산본도 있다. 이들 서적 중에는 길희성 교수의 〈지눌과 한국禪 전통〉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제불전단체(EBTI)·호주국립대·미국종교학회 등의 불교관련 사이트 총 28개와의 연결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불교연구소'에서는 인도·중국·일본불교와 관련해 진행된 연구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고 있다.

또 미국 학계에서 주목받는 불교관련 교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들중에는 한국인 박성배 교수(뉴욕주립大)도 소개되어 있다. 이 사이트 주소는 'http://garnet.berkeley.edu/~yaoming/'이다. 〈욱〉

28개 사이트 연계 각국 연구 소개

나원리 5층석탑 원형 훼손

복원후 기단석 변색 땜질식 보수 드러나

지난 7월 해체복원한 경주 나원리 5층석탑(국보 제39호)이 복원후 기술미숙 등의 결과로 인해 원형이 훼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굴꾼에 의해 탑신이 훼손돼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한 나원리 5층석탑의 파손된 탑신 등의 석재를 화강암으로 교체했으나 1층 기단석 모서리 4군데와 2층 기단석 3군데 등 십여군데가 검은색을 띠는 등 원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이중으로 된 기단석 곳곳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알루미늄 조각을 끼워넣는 등 복원 공사 자체가 어설프고 조잡해 오히려 석탑의 원형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하 십이지3층탑 도굴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2리 십이지 3층석탑(경북도 유형문화재 106호)의 상층기단부 면석2개가 도난당한 채 지난 25일 발견됐다. 팔부신장이 양각된 가로 50㎝, 세로 70㎝, 두께 11㎝ 크기의 기단석 2개가 빠진 곳에는 돌과 나무등이 채워져 있었으며 경찰은 전문도굴범들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동탑은 절터로 추정되는 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곧 긴급보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 분황사탑 인근도로 내년부터 차량통행 제한

경주 구황동 분황사 3층 모전석탑(국보 제30호) 보호를 위해 오는 97년초부터 사찰앞 도로에 5인승 승합차 이상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달 중순 1915년부터 탑신에 균열이 간 분황사 모전석탑이 차량통행으로 인해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지적에 따라 경북도에 분황사 정문앞 도로의 차량제한을 지시했다.

활성탄쌀은 밥맛이 다릅니다.

—. 활성탄 농법으로 생산된 쌀에는 농약과 제초제의 독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특이한 쌀입니다.

—. 옛날 햅쌀밥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고소한 맛과 향의 미각을 통해 활성탄 쌀의 진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광록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는 생명으로의 농업, 생명으로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된 쌀의 양이 많치 않아 백화점과 미곡 상회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직매장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택배를 해드립니다.

—. 활성탄 쌀을 구입하시면 물 사랑 땅 사랑의 환경 운동과 농촌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랑의 실천도 됩니다.

(사)광록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
전화 : 553-0089
558-0049
448-6562
512-6077

매일 읽고 쓰면 매일 쏙쏙 기억되는
每日漢文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길

주요내용 : 한자의 기본획과 변에서부터 옥편사용법.
한자의 역사, 한자 방정식
同子異音, 同子異訓등
단계적으로 쉽게 익힐수 있도록 편집

※ 一日一言 오늘의 강좌 생활인의 좌우명, 고사성서, 토막상식, 고전의 세계 등

국어사전속에 한자로 된 우리말이 70%

주문 : 교재대금 10,000을 입금시키면 즉시우송 안내 해드립니다.
국민은행 067-21-0710-091 안용식
상담전화 448-6562
한넋다비드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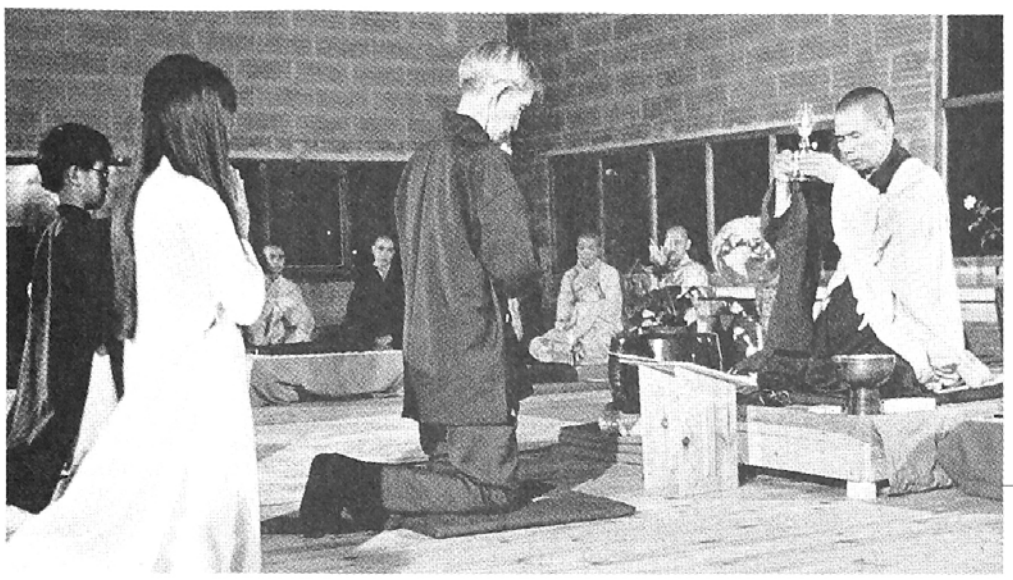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2〉

베트남 틱낙한스님



약 력

- 1926 베트남에서 출생해 16세에 출가.
- 1960 현실참여불교재단 설립. 농촌재건운동 시작.
- 1966 불교평화연맹(美)과 교류. 베트남인의 삶을 위해 국제활동 시작
- 1967 노벨평화상 후보자 지목.
- 1975 평화·비폭력운동 전개. 베트남에서 추방
- 1980 전쟁 고아·보트피플 등의 인권보호에 앞장 섬. 불교 공동체 자두마을(Plum Village, 佛) 조성.

저서로는 〈걷기 명상 지침서〉(A Guide to Walking Meditation) 〈평화로움〉(Being Peace) 〈태양, 나의 마음〉(The Sun My Heart) 등이 있다.

◇ 틱낙한스님이 자두마을의 하계 명상교육에 참가한 유럽인 수행자에게 '등불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평화의 敵은 이념·증오·무지"

공동체마을 조성…전쟁상흔 명상수행으로 치유
공산치하 비폭력운동 전개…불교사회변혁 앞장

"명상은 사물을 관조할 수 있게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삶의 무기"

"베트남의 현대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졌으며 베트남인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으로 삶 자체를 유린 당했다. 틱낙한스님은 베트남인들에게 이같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Jr. 목사는 1967년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틱낙한스님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다.

평화운동과 비폭력운동을 전개해 동아시아 실천불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틱낙한스님은 베트남 전쟁을 전후해 사원 수행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사회갈등의 장(場)에서 실천불교 운동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틱낙한스님은 이 시절 '현실참여불교재단'(1960)을 설립해 베트남 청년불자들을 모으는 한편 불교의 자비정신을 통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베트남 농촌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틱낙한스님은 "전쟁 중에는 그 어느 쪽도 끝까지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한 가지 현실의 다른 모습일 뿐이며, 진정한 적(敵)은 사람이 아니라 이념·증오·무지(無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현실참여불교재단'의 화합과 사회재건운동은 전쟁으로 생겨난 공포와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극적 대립을 보였던 양 진영의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화합과 사회재건운동을 전개한 틱낙한스님은 불교평화연맹(Buddhist Peace Fellowship, 美)을 방문해 베트남 평화운동을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종전이후 틱낙한스님은 베트남 평화 불교사절단 단장을 맡아 불교평화연맹의 조정연맹(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베트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베트남 재건을 꾀하기 위해 국제적 원조를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틱낙한스님은 1967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됐다.

'현실참여불교재단'은 파리평화협정(1973)이 조인된 후에도 75년도까지 2년간 對사회봉사활동을 계속 전개했으며 종전 이후에는 베트남 국내에서 평화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공산 베트남정권이 들어선 베트남에서 틱낙한스님이 전개한 평화운동은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을 받게 되었고 결국 틱낙한스님은 베트남 정부에 의해 구속·추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틱낙한스님은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베트남 난민 지원·프럼빌리지(Plum Village) 등의 활동과 시·수필 등의 저술에서 불교적 혜안(慧眼)을 제시하며 평화운동과 비폭력운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보트피플(Boat people)은 남베트남의 패망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베트남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당시 이들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틱낙한스님은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연합에서 "각국에 흩어진 보트피플의 수용시설은 마치 감옥을 연상케 한다. 대부분의 보트피플은 정치적 망명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수용시설은 당연히 정치적 망명자에 준해야 한다"며 보트피플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호소했다.

프럼빌리지는 망명이후 틱낙한스님의 가장 주목받는 활동의 결실. 이것은 틱낙한스님이 "한 인간의 마음이 수천의 불자들에게 전해질 때 세상은 평화와 조화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며 1960년 프랑스 남부에 조성했다. 프럼빌리지는 조화·평화·불교윤리 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현대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 불교공동체 마을이다. 이때가 틱낙한스님이 공산 베트남 정부로부터 추방당한 시기이기도 하다.

초창기 프럼빌리지는 베트남 난민과 베트남참전 퇴역군인들을 위해 사원을 세우고 이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전쟁의 고(苦)를 명상수행으로 치유하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프럼빌리지는 점진적으로 유럽에서 불교환경운동·불교사회변혁운동 등의 요람으로 발전해 나아갔다.

프럼빌리지는 남부 프랑스에서 건포도 최대 매출 지역. 따라서 프럼빌리지에서 생산되는 건포도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되며 베트남 난민들을 돕는 기금과 베트남에 의약품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프럼빌리지는 매년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유럽전역의 일반불자에게 공개해 명상수행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참여불교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종교간 화합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로움〉(Being Peace)은 참여불교운동의 역동성을 강조해 세계 참여불교계에서 주목받는 저서. 틱낙한스님이 〈평화로움〉에서 "정부의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자국 국민의 의견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커다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할 정부의 권리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인정 하에 정부가 정책을 변화시키는게 가능하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생각에 불과하다"고 올바르지 못한 사회적 역학관계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는 현실에서 분명히 진실을 보아야 한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이란 바로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기 마련이다. 명상은 사물을 깊이 관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상황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각이 중요하다. 이런 자각이야말로 삶의 무기이며 진정한 의미의 참여불교가 될 것이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오종욱 기자

나의 수행일기

김의식 〈국토개발연구원〉



"발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성취"

군법당 건립 동분서주 … 제대후 연화사 생겨

23년전 일이다.

육군훈련소를 마치고 배속된 부대는 현 부천시 송내역 부근의 유신부대 포병사령부였다. 사단내에는 유수한 연대와 대대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의 동산에는 교회가 있었다. 불자인 나로서는 당연히 군법당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 사단급이라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법당은 없었다. 사단내에는 5백여 불자가 있었는데 스님 사병도 다수 있었다.

나는 발원하였다. 부처님의 법이 이 영내에 퍼져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불자들의 깨달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선 군종참모부를 방문하여 군법당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목사인 부관이 불교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냐고 반박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지만 그 보직이 군인을 위한 군종이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사병이 건방지다고 윽박질렀다. 내무반에 돌아오니 군종하사관들의 협박과 힘구가 심했다. 나는 다시 군종참모부로 가서 군종하사관의 부당함과 군종참모부를 차라리 '기독참모부'로 개칭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기를 수차례 한 후 사단 사령부로 보직을 옮기고 PX에 근무하게 되었다.



나는 다시 군인의 사기와 인간애를 높이고 자아발전을 위해 군법당이 필요하다고 사단장에게 건의서를 올렸다. 그리고 동국대 내에 있는 총무원을 방문, 분기별 법회를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사단의 불교포교는 육관구에서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처리해줄 것이라고 거절하였다. 군종참모부에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니 법사를 모셔오면 법회를 인정하기는 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이었다.

몇 달이 지난후 다시 총무원에 들러 군법당의 필요성을 밝히고 협조를 구했지만 난색을 표했다. 그후 군종참모부에서 호출이 왔다. 법회를 보도록 해줄테니 법사를 모셔오라고 했다. "그걸 왜 내가 합니까. 나의 보직은 군종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하였다. 그리고 또 법회 볼 장소가 없으니 장소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럼 교회막사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그곳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 나는 "성스럽다는 것은 십자가로 인한 것이니 십자가를 떼고 법회를 보면되지 않습니까"라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렸다.

이런 줄다리기로 어언 1년6개월이 흘렀다. 이런 열정은 아마 대불련에서 얻어진 신앙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다. 군종부와 근무지를 뛰어다니다가 발바닥이 찢어져 의무대에서 수 바늘을 꿰매는 일이 벌어졌다. 군종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당혹했던지 육관구 법사를 나에게 보내어 일을 추진토록 하였다.

어느덧 초파일이 돌아왔다. 나는 직지사 스님병사와 함께 석바위 약사사에 들려 큰 연등을 사서 사단장 숙소에 달아드렸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던지 초파일 법회를 장교식당에서 봉행하게 되었고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나는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던가.

50여명이 참석한 법회는 힘차게 진행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사단내에 다섯 분의 스님들을 알게되었다. 스님들은 한결같이 정기법회를 가질때까지 뒤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마음으로 기도할테니 열심히 뛰기를 제의하였고 인사처 부관은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순리에 맞도록 일을 추진하라는 격려도 해 주었다.

초파일법회는 장교식당에서 진행되었다. 이 법회에 참석한 사단장 사모님은 초파일 법회를 식당에서 보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마음 아파하셨다. 이것이 연유가 되어 나는 법사님을 자주 뵙고 법당자리와 법당의 건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제대후에 사단에는 연화사라는 절이 탄생하였다고 한다. 나는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부처님의 법을 사단내에 심게 도와주신 당시의 군법사님께 감사드린다. 발원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께서는 꼭 감응하여 주심을 체험하였다.

신속하고 꼼꼼한 새로운 차원의 DM서비스 · (주)아림DM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아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 · 발송 · 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아림은 전문화된 DM서비스로 보내는 이의 우편물 한장 한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DM, 법회지,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아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아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없이 전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 · 잡지 · 카탈로그 · 서적 · 카드 등 3종 우편물
포장방식-종이포장 · 비닐포장 · 수축포장 · 신문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로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

(주) 아림DM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0-29 Tel 803-2445 · Fax 807-5784 · 정기간행물 및 각종 우편물 발송대행 · 자료입력 및 데이타 관리 · DM 프로그램 개발 · 법회보 발송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㉓

我們要之道 所謂照顧話頭 所謂反聞
아문요지도 소위조고화두 소위반문
自性
자성
絶對不是用眼睛來看 也不是用耳朶來聽
절대불시용안정래간 야불시용이타래청
若用眼睛來看 或耳朶來聽
약용안정대간 혹이타래청
便是循聲逐色被物所轉 叫作順流
변시순성축색피물소전 규작순류
若單單的一念在「不生不滅」中 不去
약단단적적일념재 불생불멸 중 불거
循聲逐色
순성축색
就叫作逆流 叫作照顧話頭 也叫作反聞
취규작역류 규작조고화두 야규작반문
自性
자성

우리들은 이른바 화두를 비춘다거나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절대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게 아님을 잘 알아야 한다.
만약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다면 이는 곧 소리와 빛을 좇아 물건·형

"생사심 베고 장원심 일으키는 공부 시절 도래하면 물은 도랑을 이룬다"

상에 휘둘리는 것이라 따라 흐르는 것이라 한다.
만약에 흘로 뚜렷한 한생각이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가운데 소리나 빛을 좇지 아니하면
이를 거슬림이라 부르고 조고화두, 반문자성이라 부른다.

參禪最要生死心切 和發長遠心
참선최요생사심절 화발장원심
若生死心不切 則疑情不發 功夫做不上
약생사심부절 즉의정불발 공부주불상
若沒有長遠心 則一個十寒 功夫不成片
약몰유장원심 즉일개십한 공부불성편
只要有個長遠切心 眞疑便發
지요유개장원절심 진의변발
眞疑發時 塵勞煩惱不息而自息
진의발시 진로번뇌불식이자식
時節一到 自然水到渠成
시절일도 자연수도거성

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심을 베고 장원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약 생사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의정이 일어나지 않아 공부가 향상하지 못한다.
만약 장원심이 없다면 하루동안 땡볕을 쐬고 열흘동안 추위에 떠는것과 같아 공부가 조금도 이뤄지지 않는다.
오로지 끝까지 밀고 가고, 죽기로 각오한 간절한 마음이어야 참다운 의정이 문득 일어나게 되며
그때라야 진로번뇌는 쉬려하지 않아도 절로 쉬게되니 시절이 도래하면 자연히 물은 도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我說個親眼看見的故事 給爾們聽
아설개친안간견적고사 급이문청
前淸庚子年間 八國聯軍入京
전청경자년간 팔국련군입경
我那時跟光緖帝 慈禧太后們一起走
아나시근광서제 자희태후문일기주
中間有一段徒步向陝西方面跑
중간유일단도보향협서방면포
每日跑幾十里路 幾天沒有飯喫
매일포기십리로 기천몰유반끽

내가 직접 살펴본 옛일을 그대들에게 들려주겠다.
청나라 경자년에 8개국 연합군이 북경에 쳐들어 왔는데 그 때 나는 광서황제와 자희태후 일행을 따라 도보로 협서성 방면으로 피난을 떠났었다.
하루 수십리 길을 걸으면서 며칠씩 식사도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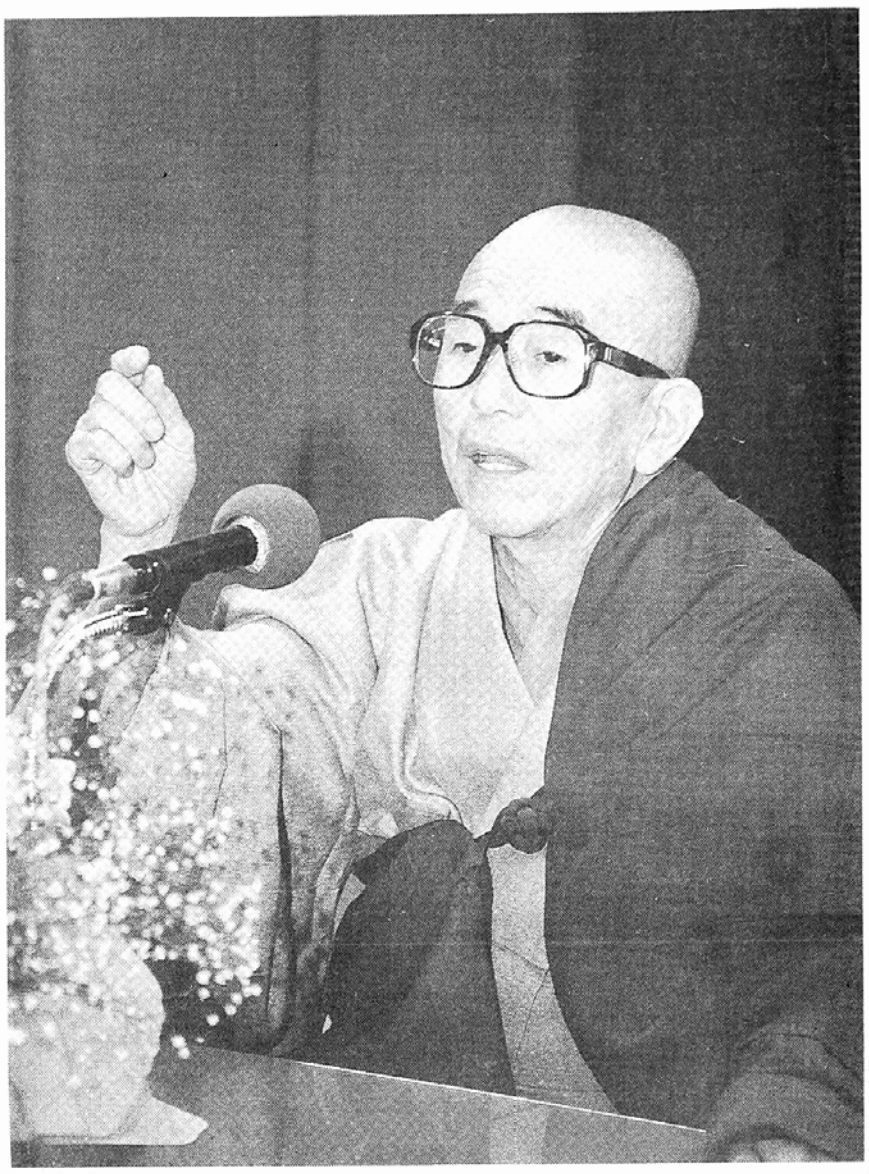
路上有一個老百姓進貢了一點番薯藤
노상유일개노백성진공료일점번서등
光緖帝 他喫了還問那人是甚麼東西
급광서제 타끽료환문나인시심마동서
這麼好喫
저마호끽
爾想皇帝平日好大的架子 多大的威風
이상황제평일호대적가자 다대적위풍
那曾喫過幾片番薯藤 那曾餓過半頓飯子
나증끽과기보로 나증아과반돈두자
那會喫過番薯藤
나회끽과번서등

가는 길에 한 노인이 토마토와 고구마를 황제께 올렸다. 황제는 다 자시고 나서 그 노인에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인데 이토록 맛이 있느냐" 하였다.
내가 생각해 보았다. 황제는 평소 좋은 가마에 위풍 당당했으니 일찌기 몇 걸음이나 걸어 보았겠으며 일찌기 반끼니마 배를 주려 보았을 것이며 어찌 일찌기 토마토나 고구마 따위를 먹어 보았을 것인가.

龍 眼

지상법석

"선업 짓는 일에 매진하면



종성스님 〈임제선원장〉

약력
- 1930년 전북 부안 生
- 전주고등학교를 나와 원광대학서 불교학 이수
- 1968년 백양사 서옹스님 문하에 출가후 수선참구
- 임제선풍 현양에 주력하며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辨〉등 논저 발간

불자님들은 '불교는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깊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선법문을 듣는 것은 즐기면서 '선법문은 어려워서 들어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봉천동에 임제선원이라는 조그만 토굴을 마련하고 사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중에 대학교수 부부가 자주 찾아 오는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그 어린 녀석이 어버이를 따라 절에 와서는 스님의 법문도 듣고 어른들 따라 참선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어린녀석에게 물어봅니다. "너 스님 말씀을 알아듣니?" 그런데 그 어린녀석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는건 알고 모르는건 모르는데요." 참 명답이지요. 어린 아이의 속이 이렇듯 야무집니다. 불교는 어려움 속에 쉽고 쉬운 가운데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어려움도 없고 쉬운 것도 없는 것이 불교이고 선인데 그 어렵다는 생각에 발이 묶여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불쌍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 녀석의 대답이면 불교가 어렵다 선법문이 어렵다 하는 불자님들의 푸념을 다 사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라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화두란 의심입니다
나를 의심하고
부처·조사를 의심하고
법계를 의심하고
그 의심이 풀어지면
팔만세행이 다 내것"

스님들의 법문을 듭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르는 것이 오히려 정칙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알면 모두 다 해탈성불 했을 것입니다. 어렵고 모르는 가운데 그걸 알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날 툭 터지는 것이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이 가르치신 참도리입니다.
중국 5가7종의 법안종(法眼宗) 제3조인 영명연수(永明延壽)스님의 이름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1백권의 〈종경록〉을 저술하신 스님은 문자와 종지에 통달했는데 그 스님의 〈유심결〉 한 구절을 들어 보십시오.
문이불신(聞而不信)이라도 상결불종지인(尙結佛種之因)이요
학이불성(學而不成)이라도 유개인천지복(猶蓋人天之福)이라
불실성불지정인(不失成佛之正因)이고 수호불망자(守護不忘者)는
황문이신학이성(況聞而信學而成)하여 기공덕(基功德)을
기능도량(豈能度量)이리오.
듣고 믿지 않아도 부처의 종자를 맺을 인연을 갖는 것이고 배워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복이 인천을 덮을만 하니 부처의 바른 인연을 잃지 않고 수호하는 자는 오히려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룰지니 그 공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가 어렵다 선법문이 어렵다 하는 말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알건 모르건 듣는 것만으로도 성불의 씨앗이니 말입니다. 연수스님은 이 〈유심결〉에서 '선법문이 잠시 귀에만 스쳐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책을 보실때면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어렵다는 함정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에서 전해 오는 우리 속담에도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 안간다"는 말이 있으니 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명연수 선사에 대해 잠깐 더 말씀 드릴까요. 그 스님은 출가전에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사를 지냈는데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쯤 되는 벼슬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지사란 큰 겁니다. 그 넓은 땅의 지도자니까요. 아무튼 그는 자사였는데 한 해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굶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고(國庫)를 헐어 기민을 구휼해야 할텐데 자사라도 중앙의 허락이 없이는 국고를 헐 수가 없었습니다. 절차를 밟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당장 굶주린 백성들은 그 절차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선참후계(先斬後啓)라. 먼저 국고를 헐어 굶은 백성을 먹이고 난뒤 중앙에 그 절박한 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자사는 법을 어긴 것이 사실이므로 참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형리가 보니 그 자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너무나 태연자약하고 얼굴빛이 좋거든요. 형리는 '이런 대인을 죽이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죄다'라고 다시 상소해 자사를 석방시켰습니다. 자사는 그 길로 절에 들어가 불법에 귀의 했던 것입니다. 속세의 그 험난한 흉년에 목숨을 걸고 기민을 구휼하려던 그 그릇이 바로 큰 스님의 그릇이었음을 알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 간 : 96. 11. 1 ~ 97. 2. 20
■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동참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3270-3498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지상법석

마음 밝히는 도리 열려요"

"옛 어른 가르침에 나를 비춰보고 오늘의 나를 옛 어른 가르침에 비춰보라"

수 있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얘기를 다시 돌려, 불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변을 잘 보면 하나로 통하고 그 하나마저 버리면 그 자리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한 말씀만 들어도 그 앞에서 모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만대의 중생에게 고르게 적용되는 절대진리 그 자체인데 세월이 가고 시절인연이 변할 수록 그 가르침을 즉각에 깨닫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생폐(法久生弊)라. 법이 오래가면 폐단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변하여 폐단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은 법으로 여여한데 시절인연이 변화하여 폐단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스님들이 화두를 내리는 겁니다. 노파심절(老婆心切)로 만들어 내리는 화두에 의지해 일체의 번뇌와 사량의 분별을 끊어버린 진면목의 세계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화두가 어려운 것은 바로 그 화두에 매진하여 최상의 이치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불교공부가 그렇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다 쉽다를 놓고 따지는 것이 화두가 아닙니다. 화두란 그 속에 일체 법계의 길을 다 갖추고 있으며 팔만세행을 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활대에 비유되는 것은 그 가르침이 일체중생의 근기를 따라 두루 적용도기 때문이고 조사의 가르침을 활줄에 비유하는 것은 팽팽하고 곧은 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화두를 깨치는 것은 팽팽한 활줄의 긴장을 툭 끊어 버리는 찰나적인 법열의 온전한 체득입니다. 〈벽암록〉 〈무문관〉 〈입제록〉 〈염송〉과 같은 책들은 하나같이 조사들의 화두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 화두 속에 가득한 진리의 본체를 알아내는 일이 선수행의 목표입니다. 옛 어른의 가르침에 나를 비춰 보고 오늘의 나를 옛 어른의 가르침에 비춰보라(고교조심(古敎照心) 심조고교(心照古敎))고 했습니다. '경(經)'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어록(語錄)'은 조사님들의 말씀입니다. 그 옛 어른의 가르침에 오늘의 나를 비춰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화두란 의심입니다. 화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고 나를 의심하는 것이고 부처와 조사를 의심하는 것이고 법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큰 의심이 큰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든다는 것은 의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풀어지면 팔만세행이 다 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화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의심을 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러, '파자소암(婆子燒庵)'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노파가 젊은 스님 한 명을 모셔다 암자를 지어 주고 의식수발을 들며 공부에 매진토록했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스님을 공양하여 공부하게 한뒤 노파는 어느날 밥상을 딸에게 가져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은밀히 뭔가를 시켰습니다. 딸은 밥상을 가져다 스님 앞에 놓고 어미가 시킨대로 스님에게 답싹 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님, 이런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삼동(三冬)에 더운 기운이 있을리 없고 고목이 찬 바위에 의지함이다."

딸은 어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파는 노발대발하며 암자에 불을 지르고 스님을 쫓아 버렸습니다. "내가 여태껏 큰 마구니를 키웠구나"라는 탄식과 함께 말입니다. 참 이상한 노릇이 아닙니까. 노파는 왜 그랬을까요. 의심이 나지 않습니까.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두란 조사들이 파 놓은 허방다리(함정)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야 참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까딱하면 깊고깊은 허방다리에 쑥 빠지고 맙니다. 잘 건너야 합니다. 반드시 의심하는 만큼의 깨달음이 있어 마침내는 꽃이 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현생에 그 꽃을 못 피우면 내생에 피울 수도 있으니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발심자경문〉도 '종사나 법사의 법문이 어렵고 거칠더라도 그것을 허물잡지 말고 잘들으면 얻을 것이 많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다느니 쉽다느니 화두라느니 경전이라느니 이런 것을 다 말해도 불교는 오직 마음 심자(心字) 한 자를 아는데 그 구경의 목표가 있습니다. 명심견성(明心見性)입니다. 마음을 밝혀 본래 진면목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구경목표라면 화두의 최종 목표이고 경전의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법계를 아는 것이니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명심견성에 이르는 세가지 목표가 또 있으니 그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면 구경의 목표에 도달한다 할 것입니다. 전미개오(轉迷開悟) 이고득락(離苦得樂) 지악수선(止惡修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미개오란 미혹함을 벗어던지고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내는 것입니다. 미혹은 집착에 휩싸여 사량분별하며 악업을 지을 뿐입니다. 그 미혹을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용기와 정진이 없이는 마음을 밝힐 길이 없습니다.

이고득락이란 모든 중생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고통을 벗어 건지고 즐거움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크면 클 수록 마음 닦아 해탈성불하려는 원력도 크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고통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악수선은 전개미오하고 이고득락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할 도리입니다. 선업을 닦지 않고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미혹을 깨달음으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악업 짓는 일을 그치고 선업 짓는 일에 매진하는 데서 마음 밝히는 대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졌고 마음으로 멸합니다. 〈화엄경〉의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라는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명심견성의 한발은 내디딘 것입니다. 한발을 내디딘 사람이 백발천발 만발을 가는 것입니다. 법계의 모든 것을 관하여 보면 일체가 마음으로 지어졌다고 했으니 마음을 밝혀 알면 법계의 온전한 성품 도리를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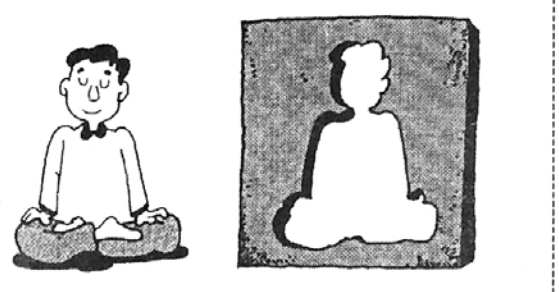
〈반야심경〉의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도 다 마음으로 이뤄진 법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과 공이 다 마음에 있는 것이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일 수 밖에요.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자주 얘기합니다. 탐진치 오욕락의 욕계나 물질의 세계인 색계나 물질은 아니되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나 다 마음의 작용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지경에서 보면 몸(물질)이 있어서 정신이 있는 것이고 몸이 없어지면 정신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그곳에 가 봤느냐고 대꾸하거든요. 집착의 물질계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서양에도 유심론이 있지만 그 유심론은 불교의 일체유심조 도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인 마음 속에 일체가 있고 그 가운데 물질이 있고 이 몸도 있는 것이어서 공기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 그 몸을 유지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고 오직 물질만 있다면 공기와 물과 음식이 서로 합쳐져서 영양이 될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고 그 지은바의 인연이란 무척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도리와 귀한 인연을 잘 지켜가는 것이 불자로서 바른 길, 바른 수행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명심개오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팔만사천 법문 일체중생 근기따라 두루적용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룰지니 '불심이 곧 공덕'

"모든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고 그 지은바 인연은 귀합니다 마음도리·귀한인연 지키는 일은 불자로서 바른 수행의 길"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5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32)

반야와 열반

있는 그대로 보며 욕망불길 꺼진 상태

'空'을 비추어 볼수 있는 둘 아닌 한 경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공부하는 보살은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라고 경전은 설한다. 분별지에 의해 사리관단을 하는 보통사람들은 이치를 거꾸로 보기도 하며 진리를 모르기에 쓸데없이 애를 끓이며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분별지를 넘어서 반야로 비추어 보는 보살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며 진리를 알기에 열반에 든다는 뜻이다.

분별지로 보는 세계는 이중성으로 나타나며 이 이중성 중 우리는 일부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열반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불교의 특징은 '공'사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반야이고 공을 체득한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인 자리가 열반이라는 뜻에서 반야와 열반이 불교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불교도 믿음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적인 신에 대한 신앙을 주장하지도 않고 신의 은총으로 얻게 되는 천당이나 극락을 최고의 은혜나 복락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반야로 비추어 견성성불하고 열반에 들 것만을 주장한다. 부처를 최고의 자리로 말하면서도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 선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극락에 관해 얘기하면서도 극락마저 선업 다하면 없어지고 말한 때의 꿈으로 여긴다. 반야가 없으면 올바로 살필 수 없기에 전도몽상이 일어나 얻은 것도 곧 잃게 된다는 뜻에서다. 사실 너와 내가 하나로 된 자리에서 얻을 것이 따로 없다는 '공'사상에서 볼 때 천당과 극락도 별것이 아닐 수 밖에 없지만 지혜 즉 반야를 최고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불교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없기도 할 것이다.

열반이란 불교적 성인이 육체적 삶을 마감할 때 보통 쓰는 말이지만 불에 탄 재와 같이 다시는 욕망의 불길이 일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욕망이란 그 자체로서 나쁘거나 좋다거나 하는 성질의 것은 물론 아니다. 반야지가 없어도 모두가 연결된 하나임을 모르고 너와 나를 나누어 나만을 위해 그릇된 욕망을 불태울 수 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나를 불행케 하기에 그릇된 욕망의 불길이 꺼진 상태가 행복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 열반의 참된 의미다. 그래서 반야와 열반을 분리시켜 말할 수는 없다. 반야로 보는 마음의 상태가 곧 열반이요, 열반에 든 마음이 보는 지혜가 곧 반야다.

반야와 열반은 분별지로 보는 사람이 말이나 글로써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야나 열반의 상태가 어떻다하는 것을 그려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깨달으라고만 말한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천당과 극락을 그려낸다 하더라도 결국엔 전도몽상하는 마음이 추구하는 그릇된 욕망이 충족된 상태를 그려낼 뿐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낙원에 빈곤을 모르고 아프지도 않으며 죽는법도 없다는 식으로 세속적인 충족의 극치를 생각해낼 뿐이다. 그릇된 욕망이 꺼져버린 마음이 찾은 그 자리 곧 '공'에서 볼 때 처음부터 생노병사는 없는 것인데 무엇을 더 찾겠는가. 이중성을 뛰어넘어 정신과 물질을 따로 나누지 않는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그저 모든 것과 하나로 된 '공'의 자리 거기에서 무엇을 더 찾겠는가? 찾을 것이 없다. 찾는다는 마음도 없다기에 사람들은 열반과 죽음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열반이란 그런 쪽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과 열반을 함께 비교하는 것은 분별지가 만들어낸 착각이다. 분별지로 관단하는 한 반드시 이런 종류의 착각이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 현대물리학의 양자론이다.

전도몽상을 멀리 벗어난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것을 얻지 못했으면 즉 깨닫지 못했으면 믿고 수행하라는 것이 경전이 뜻하는 바다. 그것은 다음에 '크게 신비한 주문'을 말할때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겠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 수 대 학 : 남경중의약대학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침치료,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수료증 수여
◆인 원 : 10명 이내 선착순
◆출 발 일 : 1996년 12월22일 (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고 독
이자임결혼연구원

어둠이
그리움 되어
도시의 끝 자락을
물들입니다

침묵과 그처의 빔
수없이
적막을 개드리고
공허한 가슴에
소슬한 바람이
그대의 맑고 깨끗한 이슴이 되어
가슴으로 젖어 듭니다
솔잎바람
달빛 향기 스미는 그대 창가에
풀잎 끝 마다
그리움으로 엉키어
가만히 내려앉은
밤 이슬이 되겠습니다
머얼리
파랗게 부서져 내린 파도를 업고
서로의 먼 눈빛으로
젖어

고독은
세벽을 기다립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법화경 대강좌

▶일 시 : 1996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90분간)
▶기 간 : 6개월간(매주)
▶수강료 : 월 3만원 (교재와 테잎 무료 제공)
▶강 주 : 혜경(惠耕) 큰스님
▶장 소 : 무설정사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27-51
우편번호: 142-076
전화: 990-7598

1996.11.20

■ 통신 수강도 가함

법화연수원 무설정사

불교달력

"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 화 : 02)269-9755
FAX : 02)268-2391

고은 불교대하소설

네 사람은 염라청을 거치지 않고 도리천에 6세 아이로 태어났다

도리천은 수미산 높은 지대에 있다
상수는 아름다운 천녀를 어머니로
박월 길성 순풍은 세 쌍둥이로…



기어코 세사람 박월 길성 순풍이는 파도더미를 타고 있는 시체로 흩어져 있었다. 이미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과 한통속이 된 상수의 시신 역시 여기저기 고기에게 먹거리가 되어 뜯어 먹힌채로 세 시체와 더불어 그 일대의 파도더미 위에서 살컷 파도를 타고 있었다.

그 거센 파도들이 어느 정도 힘을 잃고 가라앉을 때까지는 물 속의 고기들도 그들의 억척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파도 위에 떠다니는 사람의 시체 따위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없었다. 아니 어떤 재빠른 짐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도더미의 무서운 기세를 이겨낼 수 없는 노릇이어서 바다 속 깊이 내려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바다의 깊은 수역에서는 이처럼 바다 표면의 일과 상관없이 다만 물살이 다른 때와 달리-어느 만큼 일렁거릴 따름이었다. 그곳은 아주 아늑자늑함으로 고기들에게는 어미의 품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바다밑 어디에 용궁(龍宮)이 있는 것일까.

〈화엄경〉의 세계를 펼쳐 말한 제8회 이외에도 한번쯤 그것을 말할 것을 남겨두었거나 〈화엄경〉 한질을 소장하고 있는 그 용궁은 어디인가.

아니 〈법화경〉 제바달다품에는 용왕이 경전을 잘 소장하고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현세의 불법이 쇠퇴할 때는 용왕이 그 용궁에서 불법이 적혀있는 그 경전들을 잘 지켰다가 다시 온세상에 내보낸다 하지 않던가.

그뿐 아니라 스스로 불법에 독실한 파갈라용왕의 여덟살 난 어린 딸 용녀가 지상으로 나가 남자로 화해서 높은 수행을 거쳐 이윽고 남방 무구세계에 가서 부처가 되었다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용궁은 바다 밑의 어딘가에 있기도 하겠지만 환편으로는 바다 위의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전해 오거니와 그곳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천축의 남방 어디에만 있다는 것인가.

아닐 터이다.

용궁은 남섬부주 사바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그곳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중국의 연안이나 내륙의 호수와 강에까지도 있고 조선의 세 바다 어디에도 그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상수가 그토록 현세와 내세를 통틀어 찾았던 관세음보살에의 신앙으로 보타락가섬을 찾아갔다가 세 사람의 사공과 함께 성난 조류를 타고 함께 뜬 사실 때문에라도 용궁이나 보타락가의 소재를 찾아나서야 하였다.

하지만 네 구의 시체들은 파도와 파도가 맞부딪치는 동안 입은 옷가지가 어느새 벗겨졌고 맨 육신조차 물의 사나운 힘에 의해서도 고기가 파먹은 것처럼 여러 부위가 떨어져 나가야 하였다.

그런 처절한 파도의 힘이 수그러든 것은 몇시각이 지난 뒤였다. 어느덧 그 시체들은 강화도 서쪽 난바다에 떠있었다.

어디에도 용궁이나 보타락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바다가 그 노기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자 이번에는 바다속의 고기들이 떠올라서 떠다니는 네 시체들을 건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런 고기들의 종류 가운데는 죽은 육신 따위는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개는 산 육신이나 죽은 육신 따위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폭풍이나 태풍이 지나간 직후야말로 고기들에게는 그동안 참아온 굶주림 때문에 바닷 속의 서로 먹히거나 먹는 일 따위보다는 바다 위의 먹거리를 찾아 떠오르는 일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였다.

네 구의 시체는 많은 고기들의 밥이 되어서 뼈 사이에 늘어붙은 살점 말고는 발싸 앙상한 해골로 되어 조류에 밀려서 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아뇌야식은 다른 생명체의 죽음과는 달리 사바세계 시간으로 49일을 거치지 않고 마치 가벼운 민들레 꽃씨처럼 날라감으로써 중음(中陰)의 세계를 지나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중음이 가득 채워진 만중음(滿中陰)을 통해서 아뇌야식 자체가 태어날 세상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명계(冥界)의 여러 심판 가운데 염라국의 염라청을 거치지 않고 네 사람은 바람도 불지 않는 상태인데도 날으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아뇌야식의 영혼으로 도리천(忉利天)에 태어난 것이다. 상수와 박월 길성 순풍이 들이 그랬다.

그들이 어떻게 함께 그런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최소한 인간으로 산 자난 날에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태어날 기약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 법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를레라 모를레라
한 집안의 일이 여기 있도다

이 말은 바로 염라국의 염라가 이같은 사실을 뒤에 알고 나서 읊은 노래였다.

도리천 혹은 33천이란 어디에 있는 천상계인가. 남섬부주 위에 8만유순이나 되는 수미산 높은 지대에 있다. 그 천상의 한 가운데에는 선견성(善見城)이 있는데 4면이 8만유순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이다.

거기에 제석천(帝釋天)이 머물고 있고 네 곳에 여덟 성이 있어서 여러 천인(天人)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네 곳에 8성이 있으므로 모두 32성인데 한 가운데의 선견성과 함께 33성의 천상계가 된다.

이곳에서는 며칠만에 모여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서로 토론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같은 토론만이 거의 유일한 수행이기도 하고 임무이기도 하다.

그런 뒤에는 즐기는 것 밖에 할 일이 없다.

이곳의 1주야는 인간의 1백년이고 이곳 천인의 키는 1유순이나 크고 이곳 천인들이 입는 옷의 무게는 6주(銖)나 되며 남녀가 성행위를 할 때만 인간의 형상으로 바뀌어 진다.

여기서 태어나는 아기는 처음부터 인간계 6세 정도의 아이이다. 누가 입혀주지 않아도 스스로 옷을 입고 태어나게 된다.

수명은 1천세이다.

사바세계의 주세불(主世佛)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곳 도리천에 머물러 있는 그의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서 이곳의 3개월동안 설법한 일은 그의 쉬지 않은 수행과 기나긴 지상의 설법과 신묘하게 겹치기도 하고 그 둘 중의 어느 하나이기도 하였다.

바로 이 도리천 주거지역 부근에 희녀시(戱女市)가 있다. 이곳은 도리천 천인 남자들이 여자와 노는 곳이다.

아무리 천인일지라도 아직 인간계의 욕망을 벗어난 상태가 아니므로 그 성적 욕망은 꺼지지 않았다. 인간계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이곳의 성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녀(天女)들도 그런 성욕과 성애에 대한 생각은 남자보다 더 깊을 때가 많다.

다만 그들의 성욕과는 달리 성행위 자체는 인간의 그것과 다르다.

첫째 그들에게는 성기를 통해서 사정되는 정액이 없고 그 정액 따위를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없다. 굳이 말하자면 무정(無精)의 성행위인 것이다.

과연 천상계의 성행위에는 황홍경의 정점에서 정액 대신 한 줄기 바람이 사출(噴出)되는데 그 바람은 더운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것이다.

그런 바람이 나오는 것으로 천인들의 성욕은 당성되어서 그 이상의 즐거움을 바라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런 도리천의 욕계(欲界)에 몸연변이적으로 막 태어난 것이 상수를 비롯해서 박월 길성 순풍이 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확인해볼 겨를도 없이 도리천 한쪽 8성 중의 한 성의 천남(天男)과 천녀(天女)가 그들의 주거지역 밖의 희녀시에서 무한한 성적 쾌락에 넋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6세쯤의 어린 아이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수는 지극히 아름다운 천녀를 어머니로 삼고 태어났고 박월 길성 순풍이는 다른 천남 천녀 사이에서 세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들은 천상세계 도리천에 태어나자마자 6세쯤의 아이로 몇겹을싸 구름 속과 같은 마당을 걸어갔다. 그곳에 백가지 꽃이 피어있었다. 꽃향기가 가득하였다.

"아 좋은 냄새다!"라고 순풍이가 소리쳤다.

그림 · 조향숙



104

다시 태어나기

하지만 그가 왔던 첫 염라국은 천상이었던 것이다. 염라라는 이름이 붙은 천상의 그 왕국은 언제나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고 뜨락에는 백가지의 꽃들이 울긋불긋 피어서 그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쩌 그런 꽃에 나비가 없으리. 실로 백가지 종류의 어여쁜 나비들이 이 꽃술과 저 꽃술에 담겨져 놀고 있었다.

그런 염라국의 천상에는 인간이 죽은 뒤 새로 태어나는 일이 쌓여갔다. 그런 새 천상 인간 가운데는 어쩌다가 악인(惡人)도 적지 않아서 불가분 천상의 왕국과 지는 수미산 높은 지대에 있다. 그 천상의 한 가운데에는 선견성(善見城)이 있는데 4면이 8만유순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이다.

거기에 제석천(帝釋天)이 머물고 있고 네 곳에 여덟 성이 있어서 여러 천인(天人)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네 곳에 8성이 있으므로 모두 32성인데 한 가운데의 선견성과 함께 33성의 천상계가 된다.

이곳에서는 며칠만에 모여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서로 토론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같은 토론만이 거의 유일한 수행이기도 하고 임무이기도 하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질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제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함,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주 大明堂 (실촬택) 急賣
위치 : 충북 단양 적성면 錦繡山 최고요지(입야512평)
*에로10에서 15분 관광지정치, 버스정류장(왕궁터 행국)
■가격: 평당 6만원(터는 택호, 같은 공동묘지가격)
■기타: 동남향, 남한강, 도담삼봉이 아래 절처처있는 경치 최고지
연락처 : (0343)71-7242(산주)
*부동산 절대 사절

小白山 령통사
산세가 수려한 곳에서
기도및 휴양하실 몇분을 모십니다.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숙식 제공 및 1인1실 · 기름보일러
연락처 : (0444)22-1094
22-0347

모십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
노전 · 부전 스님을 초빙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487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연락처 : 902-2663
903-3361

암 · 간경화 · 정신질환 · 신병 · 병명없는병 · 불치병
6개월 이상 생존 할 수 있으며 자력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력을 가진 환자로서
4개월간 정기 心요법을 받은 환자 10명중 9명이상 의학적 완치을 입증 임상 사례공개
신앙기도 · 천도제 · 구병시식 아님
연락처 : 0552)82-8118
0552)82-8128
H·P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디스크 · 관절염 · 비만 시술 및 개인지도
◆ 각 관절 · 척추 · 골반 · 교정법
◆ 음양오행 · 기공 지압법
◆ 목 · 허리 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비만 · 중풍예방 시술 · 지도
전화 : 543-7306 · 711-4370
張三洙 척추교정 · 지압원

포교당 안내
●위 치 : 망우 사거리 ●정수 : 30평
●보증금 : 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천만원
●연락처 : 02)494-3929 (0573)73-3464
011-218-6055 011-535-3321
012-296-6055

암 · 간경화 · 정신질환 · 신병 · 병명없는병 · 불치병
6개월 이상 생존 할 수 있으며 자력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력을 가진 환자로서
4개월간 정기 心요법을 받은 환자 10명중 9명이상 의학적 완치을 입증 임상 사례공개
신앙기도 · 천도제 · 구병시식 아님
연락처 : 0552)82-8118
0552)82-8128
H·P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늙지않는 피부관리(남 · 여)
기미 · 여드름 · 검버섯 · 늘어진얼굴
불로장피불감미회원모집
압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하동 악전사)스님을 찾습니다.
진주「대봉사」에서 적명 스님과 함께 상주하시다가 「연화사」로 옮겨 수행하시던 「대일 스님」을 하동 「악전사」 주지 석적명 스님이 찾고 계십니다.
*대일 스님의 거처를 아시는 분은 연락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경남 하동군 대덕리 산 51의 3
악전사 주지 석적명
전화(0595)83-5310~11 · 83-5329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올 사찰창건 30년이상됐음
▷가격: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탁자, 달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탑전(화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괴왕사(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달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옥각 목천집
• 울성(상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신광사) 대웅전 문짝 달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달집
• 단양(선진사) 대웅전수미단달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 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慶尙北 點常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달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달집, 법상등회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달집회 등
구로동 원흥사 : 불단, 문짝
불교여대원 : 불단, 운각, 경탁회
방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달집, 천불회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입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법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일체 1800만원 · 월세 40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즉시 인회 가능합니다.

스님을 모십니다
역학과 염불에 능하신
스님을 모십니다
△ 부산 중심지 포교원
연락처: 051)467-5200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원사
전화 : 0331)262-0606

서울지역 종립중·고 합동 수계 현장

"연비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600여명 오계수지
"옴 살바 못자…" 참회진언
불교어머니회 40명 동참

"선생님, 수계를 받아야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연비할때 뜨겁지 않아요. 제 법명은 뭘까요. 법련화, 수연…"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구룡사에는 수계를 받기위해 소년 소녀불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법당에서는 은은한 독경소리가 흘러나왔고 때마침 도착한 학생들은 정성껏 삼배를 올리며 수계자로서 몸과 마음을 청청히 했다. 이렇게 법당을 찾은 학생들은 6백명.

반드시 치뤄야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며 다섯가지의 계명을 학생들이 알기쉬운 비유를 들며 법문했다.

법문에 공감한듯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 합장한채 법문의 한 구절이라고 놓칠세라 귀기울이는 학생 등은 수계법회의 숭고한 의미를 더했고 계사스님께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몇몇 학생들은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해 웃음보를 터뜨리는등 천진난만한 청소년들의 불심을 그대로 보



◇지난 11월 26일 동국학원 4개 중고교 6백여 불자들은 5계를 받고 참된 불자가 될 것을 발원했다.

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진행된 수계법회는 연비의식으로 절정을 이뤘다. 학생들은 무릎을 꿇고 호궤합장을 한채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라며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업을 소멸케 하는 참회진언을 독송했다. 6백여 학생들이 동시에 독송하는 참회진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간절했고 연비의식을 마친 학생들의 환한 얼굴에서 부처님마음속에 청소년들이 자리했음을 가늠하기에 충분했다. "스님께서 다가와 민선이에게 연비할 때만 해도 무섭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향불이 살갗에 닿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하는 신현정양(명성여고 1년)은 "부처님, 불교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수계식에는 불교어머니회원 강순복씨를 비롯 40명의 어머니들이 학생들과 함께 수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계사스님의 말씀처럼 부처님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범준군(동대부고 1년)과 "오늘부터 꼭 5계를 지키며 생활하겠다" 권은경양(명성여중 1년)등을 비롯 환희심에 넘쳐 불자됨은 되새기는 6백여명의 학생들 모습을 지켜보던 구룡사 신도들은 "바로 이것이 부처님 세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말을 앞두고 서울시내 종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합수계법회는 향후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 기자

"한줌 쌀 모아 이웃에 온정을"

교계복지관 '사랑의 쌀나누기' 행사 줄이어

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연말을 앞두고 활기를 띄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사랑의 쌀나누기는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도든 이들에게는 불성이 있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부처님께 공양미를 올리듯 불우한 내 이웃을 공양하자는 교계 복지관의 이색적인 자비실천운동이다.



◇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관내 저소득층에게 기쁨의 쌀을 지원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스님)은 지난 추석 영구임대단지내 50가구에 10Kg씩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불우이웃에게 '기쁨의 쌀 보내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쁨의 쌀 나누기사업을 위해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다보(多寶)'라는 쌀주머니 1천5백개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저소득층에게 쌀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 불우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도 '매일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 한줌의 쌀을 덜어 사랑의 쌀나누기 동참합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에 나섰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복현)과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고스님),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쌀을 후원받아 직접 쌀로 지급하는 것 외에도 떡으로 명절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주)풍원의 후원아래 쌀과자를 더불어 보내고 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관음사주지)은 "한줌의 쌀이면 굶주림에 지쳐있는 내 이웃에게 따뜻한 한끼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며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국내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펼치는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은 네팔 르완다 등 국제 기아돕기에만 신행단체, 사찰이 너무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동안의 우려를 일축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

"유아교육 법향 가득한 환경서"

4백여 불교유치원 7일까지 신입생 모집

전국의 각 불교유치원들은 오는 7일까지 9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약 4백여곳의 불교유치원들은 유아들의 창의력 계발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해놓고 새싹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불교유치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참선을 비롯 지능계발교육, 예절 및 효도교육, 미술, 수, 각종 표현활동 등. 특히 불교유치원은 천혜의 자연공간으로 정서와 문화환경을 갖춘 사찰 경내에 자리잡고 있어 정서함양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아기는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한 환경에서 인생의 기초를 다지며 꿈의 나래를 맘껏 펼칠 수 있게 한다면 무엇보다 수승한 일일 것이다. 문의 :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032)652-0058

'새로운 세계향한 청소년 강좌'

명원문화재단 高3 대상 실시 신심순화

명원문화재단 법과 생활문화연구소(소장 고정명교수·국민대 법학과)가 주최하는 '새로운 세계로 향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강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단국대 학술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서울ㅇㅇ고, 재현고교 등을 비롯 서울시내 4백여명의 고3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테크리에이션과 건강, 아름다운 삶과 성(에이즈 환자의 고백), 사회구조와 직업(직업교육), 장애인과의 만남, 자신에게 쓰는 편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강좌를 준비한 고정명 교수는 "수능시험이후 고 3생들의 탈선을 막고 대입입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올바른 진로를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부처의 장 *
깨달은 이의
출현은 즐겁고
바른 설법을
듣기도 즐겁다

이 향 원



사 과 문

업체명 : 대덕사
성 명 : 김영삼
주 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2-27호 우송 B/D

상기 본인은 불교용품 생산 유통업체 성심원(대표 박영임)이 생산 판매중인 연꽃 차걸이(의장등록번호 140758, 유사의장등록번호 140758-1)가 의장등록이 되어있는 상품인줄 알고 있었음에도 성심원의 동의없이 임의로 유사한 복제품을 따로 만들어 불법 유통시킨바 기존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시켰으며 성심원에는 불법 유사 복제품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이거니와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 시켰으므로 피해업체 성심원에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는 이와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96년 11월 26일
김 영 삼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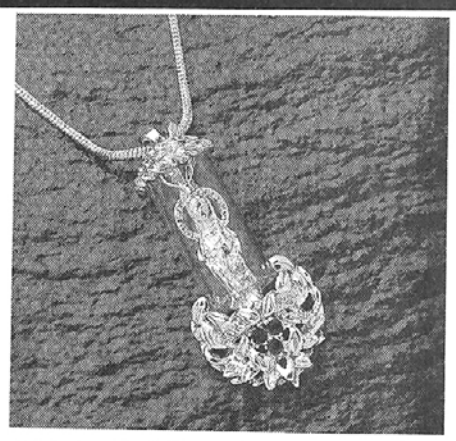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블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14k 0.5MC 특수도금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 「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 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호출 012-303-9207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잡다한 병(30~50대 여성의 火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 · 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보석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 성석의 테두리에 사로잡히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8% 심장질환자 92.6% 류머티병 91.3% 어지러움증 91.8% 두통 88.8% 고혈압 77.8% 관절염 88.8%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108염주(小)₩320,000 목걸이₩150,000
단주(大27알)₩250,000 단주(고무줄) ₩70,000 명상용氣(기)방석₩120,000
반지 ₩45,000
■ 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001-051259-02-015 예금주 조명옥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옥산가 玉山家® 777-0105

"기도영험담 왜 읽히나"

선악인과·가피력 방편신앙으로 관심
자력수행보다 기복불교 조장 우려도

"신심(信心)은 道의 근원 공덕의 어머니 모든 선근(善根) 좋은 일 낳고 길러내나니, 지혜와 복덕과 모든 공덕 이룩하고 반드시 불도를 성취하게 되느니라"(일타스님 〈기도〉중에서).

최근들어 불자들의 초발심(初發心)과 신심을 고양하는 각종 영험담을 수록한 책들이 다양하게 출간되면서 인기 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간과 동시에 책방 여시아문 집계 베스트불서에 올라 최장기 베스트불서가 되고 있는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효림), 지난 7월 발간이래 베스트불서 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도〉의 후속편 〈생활속의 기도법〉(효림), 현대의 영가천도 영험담을 수록한 〈49재 공덕과 의미〉(이바지) 등이 대표적인 책들.

최근 들어서도 영가천도 영험담을 실은 성덕스님의 〈불설 아미타경〉(어진벗)과 차길진법사의 〈영혼의 X파일〉(이성)에 이어 독송·염불 영험담을 소개한 신춘열법사의 〈업설로 배우는 지장경〉(이바지)과 현담법사의 〈극락세계 체험담〉(수선), 각종 영험설화를 새로 엮은 한정섭 법사의 〈재미있는 설화〉(이화문화) 등이 잇달아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도〉 신드롬' 이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영험담을 소재로 한 불서들은 크게 선악인과설(善惡因果說)을 주요소재로 한 '전통 영험설화', 참된 기도를 통한 일념삼매(一念三昧)의 효험을 보여주는 '기도성취 영험담', 49재 등 각종 천도재를 통한 고혼(孤魂) 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보여주는 '영가천도 영험담', 경전 독송과 염불삼매를 통한 불·보살의 가피력을 보여주는 '독송·염불 영험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같은 불서들은 불·보살의 감응과 영적인 체험 등을 실감있게 묘사함으로써 불교입문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신심을 고양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권선장악(勸善懲惡)을 강조하는 선악인과설을 불교 입문자나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림으로써 인심 순화를 통한 사회정화는 물론 포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영험담은 자력(自力)수행보다는 타력(他力)신앙을 다룬 이야기가 많아 기복(祈福)불교를 조장할 우려도 낳고 있다.

영험담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초발심을 내게 하는 방편의 의미가 큰만큼 올바른 기도와 독경 및 염불, 천도재 등 각종 수행방편의 의미를 바르게 제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해외포교 느낀점 진솔표현"

지묵스님 산문집 '봉주르, 길상입니다' 펴내



◇지묵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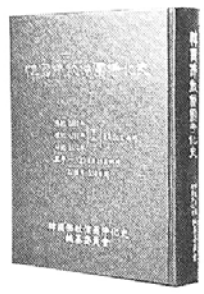
"파리 길상사(吉祥寺) 주위 길에도 마치 인연의 터인양 보리수(Les Tilleul)거리, 소림(Petit Bois)동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길상사의 창건이념이 길상향결(吉祥香潔)로 자리잡아 가고, 내 자신에게는 길상초(부처님이 성도할 때 깔고 앉았던 풀)를 깔고 앉는 큰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묵스님의 유럽 견문기 〈봉주르, 길상입니다〉(우리출판사 刊)는 스님의 다섯번째 산문집으로서 법정스님이 1993년 창건한 송광사 파리분원 길상사에서 법사로 지내며 보고 느낀 서구사회의 단면을 담담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유럽 곳곳에 정착한 한국 교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한편 해외 포교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어 실제적인 포교지침서 역할도 한다.

일조량이 부족해 어린아이에게 영양제를 먹여 일조량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프랑스 등, 유럽은 우리에게 아직 낯설은 곳이다. 지묵스님은 이곳 교민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유학생을 위한 카운슬링과 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래서 손수 컴퓨터를 두들겨 매월 회보를 꾸며 유학생들에게 보내는 일을 즐겨해 왔다. 부록에 실린 신도들의 진솔한 체험기가 해외 포교당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불교정화운동 日誌로 본다"

도광스님 '한국불교승단정화사' …1954년부터 정리





한국 근현대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불교 정화(淨化)운동'. 불과 40여년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직접 정화운동에 참여한 노스님들이 많지만 아직 공식적인 사료로 정리되지 못한 정화운동을 일지(日誌)형식으로 기록한 〈한국불교승단정화사〉(전찬위원회 刊)가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자는 지난 9월30일 입적한 도광스님(경주 성주암). 정화운동 당시 선학원 서기로 활약했던 저자가 1954년 8월24일부터 55년 5월16일까지 3백58일 동안 직접 보고 들은 것과 사진 신문기사 등을 기록하고 있어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정화관련 자료로는 △1954년 연중행사 통계표 △불교정화운동회의 기록들 △이승만대통령 정화유시문 △정화대표 경무대 방문 기록들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 종헌제정위원, 대책위원, 종회의원 명단 △비구 대처 양측간 회견기록들 △사찰정화 대책위 회의록 △이불화 거사의 '조계종 원류' 전문 △불교관련 소송사건 참고자료집 등을 수록했다.

정화운동에 참여했던 월하스님(조계종 종정)은 이책의 머리말에서 "납자들은 이 책을 상세히 읽어보고 정화정신에 입각해 세운 조계종을 부종수교(扶宗樹敎)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561)748-5233

출판소식

동국역경원 '…대비바사론' 첫 완역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은 최근 한글대장경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7, 8권을 출간함으로써 아비달마(경·율·론 삼장 가운데 論藏) 문헌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서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전 2백권(현장 한역 本)을 국내 최초로 완역했다. 역자는 송성수씨(역경위원).

〈대비바사론〉은 〈아비달마발지론(發智論)〉의 주석서이지만 단순한 주석서에 그치지 않고 발지론의 결함을 보충하여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전 교리를 집대성한 논서. 유부의 연구는 물론 부파불교를 연구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저술이다.

추사 김정희 '완당전집' 첫 국역

당대 고승들과 깊은 친교를 가졌던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시문집 〈완당전집(阮堂全集)〉(전 3권·솔출판사 刊)이 처음으로 국역·완간됐다.

〈완당전집〉은 문집 〈완당집〉, 시집 〈담연재시고(覃揅齋詩藁)〉, 편지글 〈완당척독(阮堂尺牘)〉 등 추사가 생전에 남긴 글을 한데 모은 것. 1934년 추사의 후손 김익환씨가 편찬한 이 책은 추사의 경학 사학 금석학 서화론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1권은 임정기 민족문화추진회 전문위원이, 2·3권은 한학자 신호열씨가 각각 번역했다.

새로나온 책…



▲웃으며 가는 저승길(이돈문 지음)=저자 이돈문법사(해동불교대학 교수)가 재미있는 이야기와 비유, 현실에서 저자가 체험한 일들을 적나라하게 소개해 난해한 불교를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게 한다. 또한 탐욕이 아닌 베품만이 진정한 행복임을 강조한다.

〈법사불교 7천원〉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성래경 지음)=불교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불교적인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독특한 에세이. 저자인 이화여대 성래경교수(통계학)가 한국을 수호하는 신령(神靈)으로부터 들은 하룻밤의 꿈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으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마음공부와 수행, 불교와 한의학 등을 소개했다.







〈중명 1만5천원〉

▲서역의 달은 서쪽으로 흘러간다(김영현 지음)=도서출판 학고재의 '세계문화예술기행 시리즈' 제2권. 소설가 김영현의 실크로드 기행기는 삶의 구체성에 뿌리한 튼튼하고 아름다운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미망속의 길찾기'이며, 남루한 삶과 세상에 대한 연민의 기록이다. 〈학고재 9천5백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죽음 앞에서(복거일 지음)=장편소설 〈碑銘을 찾아서〉 〈역사속의 나그네〉의 작가 복거일씨의 산문집. 청와대 안의 찬송가를 다룬 '정치와 종교의 분리', 20세기 현대문명을 꼬집은 '방랑의 시대에', 40대 가장의 자식 사랑을 그린 '아버지의 독백' 등 우리 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풀어냈다.

〈문학과지성사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6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7	법화사상	청담대종사 아비라 저	여 래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9	신도포교지침서	성 일	불 광
10	불교심리학	루네 요한슨	시공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라즈니쉬 강의 '신심명'



이 원 섭 (서 인)

근대 내지는 현대의 인도가 낳은 몇몇 성자의 소문에 접해도 나는 늘 외면해 왔다. 기껏해야 외도(外道)려니 하고 여긴 것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입수한 라즈니쉬의 〈신심명(信心銘)〉은 단번에 나의 고루한 선입견을 뿌리뽑아 버리기에 족했다.

나는 놀라움에 가득찬 눈으로 읽어 내려갔고,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폭탄처럼 작열하여 내 마음의 바다에 법열(法悅)의 물기둥을 일으켰다. 공감하는 글귀마다 밑줄을 긋다보니 온 책이 언더라인 투성이가 되기도 했다.

물론 〈신심명〉은 라즈니쉬의 저서가 아니라 중국선종의 3조(祖) 승찬대사의 〈신심명〉이 바로 그것이어서, 그는 공감한 나머지 그 내용에 관해 제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46구(句)의 긴 게송으로 된 〈신심명〉을 승찬대사가 3조답게 달마 혜가로부터 이어받은 그것, 나아가서는 서천28조(西天二十八祖)를 거슬러 올라가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부처님과도 직결되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종지를 밝힌 것이므로 한 마디 한 마디가 후세에 성행한 공안(公案)과도 같은 성격을 띤다. 아니, 경(經)과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예사스러운 표현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공안 이상으로 따라잡기 힘든 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신심명〉을 다루어 온 명사들이 기껏 그 표면적 언구(言句)에 질질 끌려다님을 보아왔는데, 라즈니쉬만은 이를 강의하되 대자재를 발휘하고 있다. 인도에서 바가밧트(世尊)로 불리운사람답게 승찬대사의 속을 훤히 읽고 있다. 경지가 비슷하기에 승찬대사에 대해 하는 말이 자기를 말함이 되고, 자기를 말함이 승찬대사에 대해 말함이 되고 있다.

그는 '마인드(心·思考)란 병이다'라 단정한다. 마인드가 바르게 움직이는 수도 있을 텐데 왜 모두가 병이냐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할(分割)함이 마인드의 속성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움직이는 데서 선과 악, 생과 사, 번뇌와 보리 따위 온갖 차별의 세계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성스러움의 추구조차 다시 차별을 낳을 뿐이니, 성스러운 사람이란 마인드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는 단정한다. 그리하여 '지옥의 오솔길은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고 하면서 소망을 갖지 말며 구하지 말 것이니 도리어 이런 것들을 온통 내던져질 때에 광명은 온다고 충고한다.

사무애변(辭無碍辯)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다.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 그대로 광명이 된다. 그는 분별이전-각종교가 생겨나기 이전의 원점에 서 있다. 그러기에 승찬대사의 지기(知己)요, 누구보다도 부처님을 존경하기도 했던 것이니, 이런이의 말에서 광명이 난다고 무엇이 이상하랴. 내가 읽은 것은 일본의 하나조노대학(花園大學)의 선문화연구소 발행의 〈신심명〉이거니와, 우리 나라에서도 번역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부디 많은 이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思考서 차별病 생긴다' 해설

"소망갖지말고 버릴 때 광명"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박대성作 '불 밝힘 굴'.

"민족정신 숨쉬는 古都 지켜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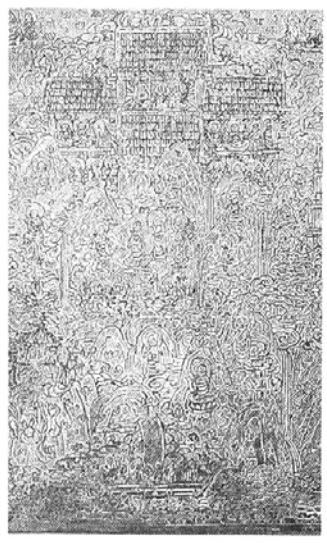
'경주' 화폭에 담는 두 화가

묵화전 여는 박대성 씨



남산테마전 준비 박문선 씨





◇박문선씨의 남산주제 동판화.

경주4계 그린 37점 선보여

천년 고도의 향취와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해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고향이 되고 있는 경주. 그러나 경마장 고속철 고층아파트 등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있는 경주. 경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그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두 화가의 최근작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가나화랑에서 경주를 주제로 한 대형 묵화전을 갖고 있는 박대성씨와 내년초 경주남산 테마전을 앞두고 현재 동판화작업에 여념이 없는 박문선씨.

이름까지도 불국사를 건축한 김대성과 같은 박대성씨는 지난 2년간 경주를 수차례 드나들면서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과 석가탑 남산 등 경주의 사계를 담은 대형묵화 37점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의 돈황, 인도의 타지마할, 실크로드, 이집트 등 세계 곳곳의 명소를 가 보았습니다만 경주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었습니다. 경주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있는 동양정신의 진수입니다. 남산 곳곳에서 친근하게 웃고 있는 석불을 보면 인간의 원초적인 불성을 보는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전에서는 먹을 사용해 거침없으면서도 세심한 필치와 수묵담채가 주는 기품과 묵직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연 '경주이야기'란 주제의 개인전에서 박문선씨는 현대적 조형미가 느껴지는 후불탱화 남산의 아기불처럼 천진한 모습의 흙으로 빚은 소조 불상, 삼릉골과 탑골을 주제로 한 등판화를 전시해 화제를 모았다.

"경주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자료가 풍부한 고도로서 발을 디디면 외적인 형태감뿐 아니라 정신적인 귀의처가 되곤 한다"고 말하는 그는 현재 경주남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동판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가로 40㎝ 세로 50㎝로 남산의 계곡계곡을 묘사해 하나하나가 한 작품이면서 15개를 맞추면 하나의 전체 남산이 되는 작업으로 이 작업이 완성되면 내년초 '경주남산'이라는 테마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동판화 15개작품 남산 조망

"남산에는 78체의 마애불과 보살상이 골짝마다 조형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도 장엄성과 예배의 대상이 되지만 남산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면 마치 중생의 세계를 내려다보는 불국토 같습니다."

구불구불 능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사이 탑과 불상들이 자연스럽게 자리하며 연꽃과 구름등으로 장식된 한폭의 만다라는 20일만에 태어난다. 박문선씨는 경주가 주는 마력에 흠뻑 빠져있다며 이 동판화작업이 화력에 또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70〉

그대는 별, 나는 달

一星天上落 (일성천상락)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五馬踏江南 (오마답강남)	다섯 필의 말 강남을 찾다
德振風行草 (덕진풍행초)	풀 위에 불리는 바람같은 덕
心虛月印潭 (심허월인담)	마음 비어 달은 못에 비치다
訟餘來鳥雀 (송여래조작)	공무 여가엔 새떼도 찾아오고
琴了續淸談 (금료속청담)	거문고 마치자 맑은 이야기 이어지네
照夜光無盡 (조야광무진)	밤 밝히는 빛 끝 없어서
寒輝物外簪 (한휘물외잠)	싸늘히 이 물외의 자리 비추오

무용대사가 강남부백에게 준 시이다. 그러니까 스님의 처지에서 지방장관에게 준 것이다. 시어의 내용은 지방장관에 대한 찬미로 일관되어 있지만, 시의 소재적 선택이나, 시어의 흐름은 스님으로서의 법도를 잃지않고 있다.

첫 연에서 상대방을 하늘에서는 별이요 땅에서는 말로 비유하는 수사성에서부터 시의 수사성이 뛰어나 보인다. 이렇듯 별과 말로 상징되는 장관이니, 그 덕은 바로 풀 위에 불리는 바람이다. 백성은 이 바람의 향방으로 쓸리는 풀이요, 이 풀의 영양으로 살아가는 양이다. 공무에 아무리 바쁘지만 달빛으로 비유되는 해맑은 본성의 진여는 잃지않은 장관이다.

백성은 순수하다. 모두 비어있는 마음이다. 물의 속성처럼 잔잔하다. 여기에 장관의 덕성스런 마음바탕이 인찍혀지는 것이다. 이렇듯 상대방을 칭송하면서도 그가 하여야 할 의무와 직분을 시어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어들은 불가 본유의 비유를 함축하고 있으니, 이것이 스님들의 높은 문학성이요, 또한 중생의 제도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시어는 관장으로서 집무의 여가에 즐기는 인간적 한적함이다. 공무의 여가에는 자연과도 친할 수가 있으니, 송사의 여가에 찾아오는 새떼이고, 거문고를 멈추면서 또다시 이어지는 해맑은 대화들이다. 그러기에 스님을 찾거나 스님이 찾아가는 만남이 될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밤 새워 비추는 달빛은 너무나 고결한 자리이기에 싸늘한 빛으로 상징되고, 그 자리는 사물 밖의 물외의 자리가 되었다. 그야말로 격의없는 만남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강심에 잠겨있는 달의 만남이라 해두자.

이중찬 〈동국대 교수〉



◇자명스님의 육신불 옹기 모습.

김교각스님전 9만명 관람

"지장보살 덕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험"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신라왕자 김교각전이 지난 9월 17일 개막이래 총 9만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막을 내렸다. 김교각전추진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대구국립박물관에서 다시 전시회를 가지며 지방불자들에게도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12월 16일부터 대구서 연장전시

김교각스님의 숭고한 수행정신을 느끼기 위해 경북궁 민속박물관에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5살 꼬마를 비롯 80노인까지, 수능시험이 끝난 고3학생들, 버스를 대절해 새벽같이 올라온 지방신도들, 외국스님들, 역사탐구반학생들 등 다양했다.

환희심에 겨워 몇번씩 와 관람한 사람들도 셀 수 없었으며 주지스님이 어린이 법회의 새싹불자들을 이끌고 전시장을 돌며 자세히 설명해 주는 풍경도 흐뭇했다. 스님인 솔하에 신도들이 단체로 많이 와 스님의 설명에 귀기울이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청룡사 신도들은 동참비를 보태 떡과일 꽃 향 등을 마련 지장스님께 정성껏 공양올리는 모습도 이채로웠다.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호기심에 전시장에 들어와서는 감격을 달뿍 안고 돌아가곤 했다.

대구전시에서는 특히 뒤늦게 도착한 자명스님 등신불옹기가 합류 전시되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숙〉

봉정사 대웅전 단청문양모사전

7일까지 동국대서…29일 전통문화학술회 열려

동양건축의 장엄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청문양모사전이 오는 7일까지 동국대학교 90주년기념문화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윤식)이 동국대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것.

우리나라 단청중 그 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고 특이한 경북 안동 봉정사의 단청문양을 모사하여 전시하는 이번 모사전에는 봉정사문양 50여점과 찬조작품 21점등 모두 71점이 전시되고 있다.

한편 전시회와 함께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우리 전통문화의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한국문화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전통문화학술회'가 지난 11월 29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이기백 고수(한림대 석좌교수)가 '전통문화의 개념과 역사성' 홍기삼교수(동국대)가 '한국문학의 전통과 현대적 계승' 이상일교수(성균관대)가 '한국연희의 전통과 오늘의 과제' 박법훈교수(중앙대)가 '전통음악의 새로운 전망' 김동현씨(국립문화재연구소장)가 '전통건축연구의 재점검과 전망' 정영호교수(교원대)가 '한국미술의 전통과 그 전망'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영호교수는 불탑 불상 부도 석등 당간 불구 사리구 등 불교미술에서 전통미술의 시원을 찾았다.



◇봉정사 대웅전 단청을 모사한 쌍용도.

문화 소식

일지암 茶수련원 완공

다성 초의선사가 주석하며 차문화의 중흥을 도모했던 한국차의 성지 일지암이 법당과 차수련원 '설림당' 복원중창불사 회향법회를 지난 11월 23일 봉행했다. 14평 규모의 설림당은 전통양식의 차가마솥을 설치, 차를 따서 법제하고 차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중교육장소로 활용된다.

8일 '맑고…' 가족음악회

맑고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스님)은 오는 8일 오후2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회 맑고 향기로운 가족음악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맑고향기롭게 모임에서 음악에 재능있는 회원들이 가족 또는 이웃단위로 참가하는 이번 음악회는 법정스님의 법문, 장학금 전달식등의 행사도 함께 열린다.

용궁사 연화합창단 공연

부산 해동 용궁사 연화합창단 창단 1주년 기념 음악회가 오는 10일 저녁 7시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꽃으로 앉으신 님' '찬미의 나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 10여곡이 연주된다.

석강작품展 8일까지

캐나다에서 활동중인 중견 한국화가 석강씨가 12년만에 귀국전을 갖는다. 오는 8일까지 조선화랑(516-3437)에서 개최되고 있는 석강작품전에는 파묵과 발산하는 채색이 조화된 과발묵 '자연으로서 삶의 모습' '갑골조형' 등 77점이 선보이고 있다.

김복희무용단 창단25주년공연

김복희무용단이 창단 25주년을 맞아 12월 3·4일 오후7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향' 등 소품 7편, 26·27일 오후7시 같은 장소에서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 등 대작 6편을 공연한다. 독실한 불자인 김복희씨는 서정주의 시 '국화옆에서'를 안무한 작품을 직접 춤출 예정이다. (02)290-1332

불교언론 보도사진전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가 주최하는 제1회 불교언론 보도사진전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96년 올해 불교계의 주요 흐름을 40여점의 사진으로 일별할 수 있는 보도사진전은 9일 불교언론인의 밤 행사에 맞춰 동국대 개교90주년기념관 그림에서 개막되어 10~16일 사간동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사찰식단 인스턴트식품 늘어

이윤희씨 '스님의 영양과 건강' 발표

서구화되어가는 음식생활과 인스턴트식품의 범람으로 사찰음식도 많이 변모하고 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수행자에게 부적합한 섭생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스님들 가운데도 당뇨병 등 각종 질병의 발병율이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 스님들의 건강이 나빠져가는 것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의 범람이 사찰음식에까지 밀려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윤희씨(동국대 가정교육과 강사)는 지난 11월 26일 동국대 학림관 교육매체센터에서 열린 가정교육과 학술세미나에서 '스님들의 영양과 건강'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도심과 산중사찰을 무작위 선정하여 스님 406명을 표본조사해 사찰음식이 어떻게 변모됐나와 이것이 스님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오신채는 산중사찰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비해 도심에선 47.6%가 사용하고 있었고 화학조미료는 산중은 25%가, 도심은 66.7%가 사용했다.

전체조사스님의 59.1%가 정상체중, 31.5%가 체중부족, 9.4%는 과체중으로 나타났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여시아문의 마음 밝히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시설·행사지원 중점 편성

주요종단 내년예산 1백억원이상 확정

조계 태고 진각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의 97년도 예산이 1백억원대를 넘어서 내년 불교계의 포교 교육 및 각종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은 지난 27일 제124회 임시종회에서 일반회계를 지난해 보다 35.3%증가된 1백39억7천8백만원, 특별회계 58억5천2백만원등 총 1백98억3천74만원을 확정 통과했다. 태고종도 이날 97년도 예산 1백6억1천3백만원을 확정했다.

이에앞서 진각종은 10월30일 정기종의회에서 새해 예산을 1백10억원으로 확정하고 사업안을 발표했다.

예산으로 나타난 각종단의 내년 주요 사업은 불교회관, 심인당건립과 불교대신설등 시설지원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계종은 종단의 숙원사업인 불교종합회관건립(45억원)과 중앙승가대 이전(50억원)에 예산의 절반가량을 책정하고있으며 태고종도 대부분의 예산을 동방불교대 개고(1백억원)와 용궁사성역화를 위해 확보해놓았다.

또 진각종도 중국 연길시에 해동심인당 신축과 복지회관을 건립 할 계획이다.

특히 조계종은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성보현황파악과 폐사지복원, 전통불교미술대전확대 등을 위해 문화부분 예산(2억2천6백만원)을 증액했고 중앙종무기관 행정전산화(2억원)를 추진한다.

포교와 교육강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14억6천만원)은 전년에 비해 5.2%를 증액, 재적사찰갖기 및 신도등록활성화, 청소년 군법당지원 등의 사업을 펼칠예정이다.

태고종은 종단연합합창단 창설,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주요 사업으로 펼치며 진각종은 서원가CD제작, 홍보비디오 및 책자발간, 진각음악제등 창종 50주년 기념 사업을 펼친다.

교육부문에서 조계종은 경주 동대비구기숙사건립, 종립선원 보조, 불학연구 등의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칠예정이며 태고종이 태고보우사상강연회를 비롯 동방불교대학설립에 주력하고 진각종은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대학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회관건립·승가대 이전에 절반

태고종 동방불교대 개교 100억원 책정

진각종 창종 50주년 사업·교양대 치중

이준엽·김원우 기자

진안군 임수진군수는 지난 11월 28일 마이산탑사에서 실사를 실시하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탑사는 절이 아니기때문에 탑군은 군소유이다"며 "대웅전 산신각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있다. (본지 104호참조)

"마이산탑사 절 아니다" 억지

진안군수, 국민고층처리위 실사과정서 밝혀

이에대해 탑사주지 왕선스님은 "1백20년된 사찰을 폐사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산문폐쇄도 불사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의 제소로 이루어진 이날 실사에서 국민고충처리위는 진안군의 탑사 철거지시와 사찰관람료 예치금 미지출에 대한 탑사의 고충을 듣고 빠른 시일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 실사결과 행정명령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산 탑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행정명령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등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진안군은 탑사가 사찰관람료 30%를 강제징수하여 각종 잡비로 유용해 군 횡포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최근 군 소유토지에 들어있는 대웅전과 산신각 82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천지탑의 철거를 지시하여 불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불교TV는 오는 8일 부터 14일까지 프로그램공급사협의회(회장 윤기선)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공급사간 시청률 조사에 대비, 주주는 물론 지난 케이블TV설치비 50% 할인행사를 통해 가입한 시청자들과 사찰 등을 대상으로 불교TV시청자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내년도 수신료 배분에 중요 근거자료로 사용될 이번 시청률조사는 전국의 7~8개 지역방송국(SO)에서 기계식 플링모드방식(쌍방향 상하대역 이용)에 의해 조사된다. 조사대상 SO는 강서 동작 양천의 서울지역 SO와 각 지방별로는 부산의 금정 대구의 수성 대전의 한밭 광주의 광주 SO가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시간별 10분과 40분에 체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다.

쌍방향조사가 가능한 전시청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청률조사를 위해 각 프로그램공급사들은 그동안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을 재편성하는가 하면 경품을 내거는 등 채널의 사활을 걸고 시청자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채널32 불교TV를 봅시다"

수신료 배분 근거 8~14일 시청률 조사

사찰과 불자등 고정시청자들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불교TV의 경우도 단 일주일간의 조사자료로 채널 선호도가 결정되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TV를 보지 않을 경우에라도 컨버터를 채널 32에 맞춰 놓으면 시청률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고정시청자들에게 홍보하는 등 시청률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방소식

불교 카톨릭 개신교 원불교

인천 종교협 3일 결성

불교 카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의 연대기구가 서울에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인천에도 결성됐다.

지난 3일 인천지역 4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천카톨릭회관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인천지역 종교인 협의회' 창립대회를 갖고 21세기를 맞아 종교인이 앞장설것을 다짐했다.

종교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창립된 인천지역 종교인협의회는 교단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성직자들의 뜻을 모아 이루어 졌다.

한편 인천종교인협의회에는 불교대표로 선일스님(인천 부르나포교원장)과 일지스님(능인사주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도어린이 45명 초청

부불교육대·총포교사회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과 총포교사회(회장 윤재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전남 완도군 보길초등학교 5학년 45명을 초청 범어사와 어린이대공원 국제신문사 등을 견학 했다.

이번 행사는 영남권 부산지역 견학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부처님 바른 진리의 가르침에 인연맺게 하는 목적으로 94년 자매결연을 맺어 행하고 있다.

프랑스에 불교바람

프랑스에서 불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불교신자가 60만여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0·40대 중반의 프랑스인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층. 따라서 프랑스의 불교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렉스프레스〉는 분석했다.

부르고뉴 지역에 세워진 유럽 최대 규모의 티벳불교 사원을 비롯해 총 80여개의 선원이 개원된 프랑스에서 현재 거세게 일고있는 불교열풍은 국영 프랑스 2TV 방송이 내년 1월부터 일요일 아침에 '부처의 목소리'란 불교의식을 매주 방영한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유럽불교대학 개설 계획 그리고 '베어' '연인' 등을 감독해 프랑스 거장으로 자리잡은 장자크 아노 감독이 불교영화 〈티벳에서의 7일〉을 촬영하는 등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달라이 라마를 향한 프랑스 불교신자의 신드롬은 더욱 뜨겁다. 달라이 라마가 지난 10월 파리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의 TV와 신문은 앞다퉈 그와의 대담을 보도했고 4천여명의 프랑스인이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듣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또 그의 저서 〈불교의 힘〉과 〈삶과 죽음에 관한 티베트식 사고〉 등은 서점가에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다.

60년대 말부터 조금씩 프랑스사회에 불기 시작한 불교 열기의 이유를 〈렉스프레스〉는 "개인주의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가치와 인간의 다양한 갈망을 연결하는 완벽한 종교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프랑스인 4명중 1명이 불교의 인과응보와 윤회설을 믿는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불교는 사회를 안정시켜줄 해답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프랑스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 60만명추정…80여 선원 개설

달라이라마 초청법회에 4천명 몰려

오종욱 기자



법륜사 대웅전 낙성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지난 11월 21일 경내에서 덕암스님(태고총림 선암사방장) 지허스님(선암사주지) 상명스님(삼정사주지)등 20여스님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대웅전낙성 및 부처님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덕암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오신뜻은 모든중생에게 행복을 안겨주기위한 것이다"며 "모든 사부대중들이 용맹정진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의 뜻을 기르자"고 말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대구BBS 개국 이후 지역불자 방송참여 '붐'

불교대구방송이 지난 11월 11일 개국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불자들의 불교방송프로그램 참여가 눈에 띄고 있어 대구경북지역의 교세를 대변하고 있다.

불교방송의 오후 인기프로그램의 하나인 '퀴즈대장경'의 경우 교리퀴즈에 참여하려는 대구지역 불자들의 전화가 쇄도해 현재 2주분의 참가자가 대기상태라고 담당 안희경PD는 전하고 있다.

또 불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사매거진'의 열린 전화코너에서는 첫 전화신청자가 대구지역불자였다는 것. 퀴즈대장경에 출전을 신청했다는 김보연화씨(대구신천동)는 "방송에 참가하기 위해 불교교리도 새로 공부하고 있고, 시간날 때 마다 불교방송을 경청한다"고 말해 지역불자들의 반응을 실감나게 한다.

이밖에 교리상담프로인 '자비의 전화'등 불교방송의 각종 프로에서 대구지역불자들의 참여를 느낄 수 있다.

대구지역 개인택시 정법회 김주본회장은 "불교대구방송의 개국으로 방송포교의 위력과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방송내용과 기술적인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청취소감을 밝혔다.

M-TV 드라마 '1961년생'

황영조씨 깜짝 출연



◇ 황영조씨

마라토너 황영조씨가 오는 12월 6일 밤 9시50분 MBC TV를 통해 방송될 창사특집 코믹드라마 '1961년생(연출 김승환)'에 실명 그대로의 육상선수 '황영조로 대사한마디 없이 단 한 장면 깜짝 출연 한다.

MBC가 라디오국을 출범시킨 61년에 태어난 한 남자의 삶을 현대사에 대비시킨 이 드라마는 '이리역 폭발사고' '서울의 봄' '88서울 올림픽' 등 역사적 사건들을 코믹하게 풀어간다.

이 드라마에서 황씨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둔 시점으로 돌아가 훈련의 고통을 금메달에 대한 희망으로 이겨내는 한국판 포레스트검프같은 마라토너로 등장, 주인공인 개그맨 김국진씨와 마주쳐 스쳐지나가는 장면을 연기한다.

목탁소리

역사학계 표절시비

김 재 경 〈취재2부 기자〉

가요계·미술계에서 자주 뉴스거리가 되어 온 표절시비가 역사학계에도 일고 있다.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책은 한국역사연구회(회장 박종기 국민대교수) 나말여초연구반(김영미 이대교수 外 10명)이 펴낸 〈역주 나말여초금석문〉(혜안 刊).

역사학계를 포함한 극학계는 촉망받는 소장학자가 주축이 된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학회였던 역사연구회가 표절시비에 휘말린 데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역주 나말여초금석문〉이 출간된 지 얼마 후인 지난 11월26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관스님)의 한 관계자는 "1주일간 〈역주 나말여초금석문〉과 지관스님의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편·고려편 1, 2, 3권과의 대조작업 및 사학계 중진교수들의 검토작업 결과 표점(標點)·주석(註釋) 부분은 물론 본문의 상당부분이 참고문헌을 표기하지 않은 채 무단 전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는 필자인 나말여초연구반측이 표절을 일부 시인, 책을 회수하겠다고 말해 그냥 넘기려 했으나 이를 번복해 사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역사연구회 박종기회장은 "조만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조작업을 벌인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정면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박회장은 또 "표절과 각주 부분은 선행연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기존 역주작업의 관행을 무시하는 것은 학문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역사학계는 표절시비가 어떻게 결론나든 진보사학의 선두주자를 자임해 온 역사연구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성 사학계의 고루한 풍토를 비판하면서 세력을 키워온 신진학회가 '관행이었다'는 변명으로 표절의 화살을 피해가더라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탈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들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 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더해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 통신 사용자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불교 TV, CA -TV 광고 및 CF제작
- 홍보영화제작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할 21세기포교, 수행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중계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멀티큐브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E PRODUCTION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 B/D 202호
- 전화 : (대)02)737-8881/(직통)02)305-9320
- 팩스 : 02)375-4143

현불뉴스

만공선사 추모다례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주지법장)는 지난 11월29일 만공선사 50주기를 맞아 추모다례 및 법회를 봉행했다.

관람료사찰 3곳 지정

문화재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는 지난 11월27일 정기회의를 갖고 합천 청량사, 동해 삼화사, 진안 금당사를 관람료 사찰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관람료사찰은 58개로 늘었다.

관람료위원회는 또한 내소사, 구룡사, 도갑사 등의 관람료를 1천원에서 8백원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관람료를 재조정했다.

석굴암등 국제자원화

석굴암과 팔만대장경 등 국내 불교문화유산들에 대한 국제관광자원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30일 내한한 WTO(세계관광기구) 기술고문단은 보름간의 일정으로 경주와 부여 등 5개 지역의 사찰과 유·무형문화재를 국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한국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광주불교문화대 설립

예향의 고장 광주에 불교문화대학이 설립된다.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증심사주지)은 최근 설립 4주년을 맞이하여 불교문화교육 및 사상과 포교사양성을 위한 광주불교문화대학을 설립키로 하고 내년 3월 4일 개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광주불교문화대학은 불교학과 통신과정 1년제 주간수업으로 실시되며 1백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10일 '태아수호세미나'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오는 10일 오후 1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제 1회 불교태아생명수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묘주스님(동국대교수)이 '불교경전에서 본 태아관'을 비롯 테데스코교수(세종대), 현원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주제발표한다.

불기협예산 3천5백만원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지난 11월 25일 불교교육연구원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7년 예산 3천5백30여만원을 확정했다.

"낙서에 멍드는 불교문화재"

무량수전·수마노탑등 곳곳 훼손…대책 절실

성보가 낙서등 무분별한 훼손행위로 망가져가고 있다. 국보·보물을 비롯한 각종 성보들이 당국의 관리체계 미흡과 일부 관람객들의 보호의식 결여로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훼손정도가 가장 심각한 상태로 꼽히는 것은 경북 영풍군 부석면에 소재한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7호). 고려시대 목조불전으로 웅장함을 자랑하는 무량수전의 양측 벽면과 뒷면에는 '환생' '조지호' '96.10.14' 등 돌조각과 크레파스로 휘갈긴 각종 낱말과 이름, 연대 등의 낙서들이 빈공간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빽빽이 들어차 있다.

사찰측은 몇 번이고 보수를 청했으나 원형훼손을 우려하는 문화재관리국측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1906년 일제가 해체 보수한 이후로 줄곧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충실한 낙서관(?)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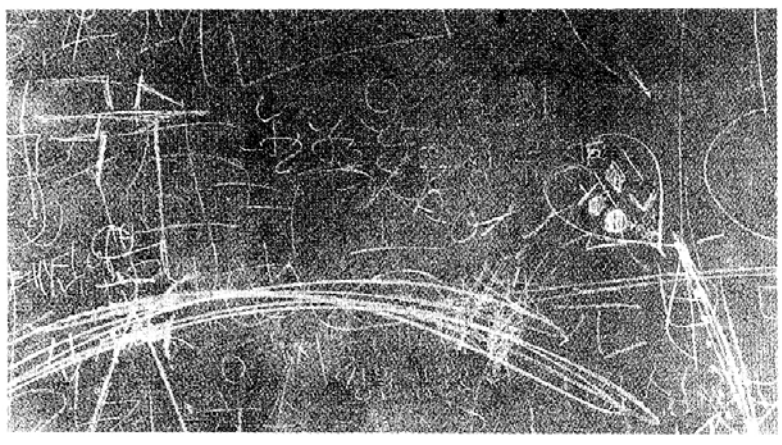
5년째 부석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운스님은 "수학여행이나 소풍 온 학생들과 일반인들 할 것 없이 벽면에 낙서를 하고 있다"며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같은 훼손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개탄했다.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소재 정암사 수마노탑(보물 제410호)도 낙서로 신음하고 있는 성보중 하나. 고려시대 모전석탑으로 높이 9m인 이 탑에는 보호철책이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조각으로 사람이름 등이 마구 휘갈겨져 있어 보기에도 흉물스럽다. 또 전남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보물 제797호)에도 감실 좌측면에 돌로 새긴 듯한 낙서가 널려있어 보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 법주사를 비롯해 국보급 성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찰들 역시 관람객들에 의한 성보훼손 가능성에 대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보훼손은 일차적으로 해당사찰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문화재관리국 국보관리 담당자는 "인력이나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보유사찰을 포함한 관리단체의 정성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사회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국보인가·낙서판인가

온갖 낙서로 훼손된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7호)의 벽면 모습. 국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곳곳의 성보가 훼손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영주=고영배 기자〉

北동포돕기 운동본부 12일 창립

교계 26개 단체 참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가 12일 오후2시 조계종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창립된다. 동산반야회 경불련 우리는선우 한국JTS 대불청 대불련 등 26개 불교단체는 그동안 5차례의 준비모임을 갖고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를 창립키로 했다.

운영위원장 박광서교수(서강대, 우리는선우 공동대표)는 "준비모임을 통해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불교대중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돕는 것은 종교인의 당연한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종교 강요교사 경기교육청 경고조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교사와 교장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달 15일 경기도교육청에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한 해당교사와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었다.

"에밀레종 신비소리 못듣는다"

상층부서 결함 발견…타종 어려울듯

성덕대왕신종의 신비한 소리를 더이상 들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국보 제29호)을 안전진단하고 있는 포항공대 부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11월 25일 "구리와 모래가 함께 섞인 종의 내부 위쪽에 모래 등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5~6군데에 걸쳐 지름 2~3㎝의 타원형태의 공간이 생겨 강도가 크게 떨어져 계속 타종할 경우 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2일 성덕대왕신종 학술대회에서 주조상태에 따라 종의 일부분만 진동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신형기박사는 "종의 성분분석을 위해 종 조각(시편) 채취작업을 벌이던 중 이같은 결함을 발견했다"며 "종의 내부 상층부에 대한 결함의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용주사 교구신도회 출범

정락스님 "사찰운영 적극 참여" 당부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교구신도회가 지난 27일 용주사 문수리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용주사 교구신도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신도회장에 용주사 신도회장 홍성호씨(경기도의원·신한국당)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창립법회는 추후 봉행키로 했다. 또 부회장 및 임원구성은 신임회장과 용주사주지 정락스님에게 일임키로 했다.

창립총회에서 정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운영에 있어서 예전에는 스님들만으로 가능했으나 요즘 시대는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직 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은 말사의 신도회 창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2교구 관내 60개 사찰 가운데 신도회가 구성된 13개 말사 신도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길병원 불자모임 7일 '가동'

수원법조인·경기은행 등도 준비…경기권 '새바람'

인천지역 최초로 병원불자회가 창립된다. 인천길병원 불자회는 12월 7일 오후2시 원내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또 수원지역 법조인과 경기은행도 불자모임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불교세가 미약했던 경인지역에 새로운 불교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역 법조인들도 불자모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은행도 연말안에 불자모임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창립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임시 국립중앙박물관 12일 공개

구 국립중앙박물관내 사회교육관 건물을 증개축해 새로 단장한 임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12일 개관식을 갖고 2003년 용산에 새로운 박물관이 들어설 때까지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번에 개관하는 임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건평 5천5백여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불교조각실, 선사실, 고구려실, 신라실, 고려자기실 등 18개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불교조각실에는 금동미륵반가상(국보 제78호) 등 모두 80여점의 불교유물이 전시된다.

류승무교수 '조계종 종회의원 의식 설문'

"미래지향적 종회운영 시급하다"

조계종 종회의원들은 의원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종단의 미래에 대한 고민, 구상, 의지부족 등의 요인으로 종회가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30일까지 종회의원 81명에게 종회의원의 자질과 역할, 중앙종회의 정치경제적 요건, 종회의 미래지향지향적 기능 등 27개항에 걸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 30명에 대한 응답결과 밝혀졌다. 또 종회의원 22명(73.3%)은 스스로 이전보다 자질이 향상됐다고 자평하면서도 과반수에 달하는 23명(75%)종회의원들이 개회전 사전준비정도, 종헌종법의 숙지정도, 종회 안건의 인지정도가 불충분하다고 말해 종회의원들이 말하는 학력 수행이력에 대한 자질향상과는 달리 실무적 자질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준비 등 실무자질 제자리걸음

"재가신도의견 제대로 수렴 못했다"

또 70.3%에 달하는 21명의 종회의원들은 중앙종회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구본말사의 의견은 어느정도 수렴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재가신도 의견에 대한 수렴은 제대로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류교수는 종회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종회의원들의 겸직제한 기준을 재고해 의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종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공개,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종회활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류교수의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가 '중앙종회의 진단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펼치는 제2차 종책세미나에서 발표된다. 〈필〉

1300년 고찰 삼화사 수행환경 '최악'

시멘트업체 석회석 채취로 분진·진동 극심

1천3백년 고찰이 시멘트업체의 석회석채취 및 발파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으로 폐사위기에 처해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월 25일 강원도 두타산 삼화사(주지 원행)가 쌍용그룹에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으로 밝혀졌다.

주지 원행스님에 따르면 "쌍용양회가 석회석채취를 위해 사찰에서 2.5~3㎞지점에서 매일 2차례씩 발파작업을 하고있으며 발파진동으로 법당의 기둥과 벽체가 갈라지고 탑 기단석이 물러나는등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발파때 소음과 분진으로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삼화사가 불교 본래목적을 수행할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복원할 것을 강력요구했다"고 말했다.

삼화사는 공문을 통해 이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공사중지를 12월25일까지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삼화사는 탑과 철불등 성보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전통사찰로 강원도 동해지역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진관스님 불법구금 명백한 인권유린"

대책위, 관계자 형사고발

진관스님 구속 진상규명 및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위원장 명진)는 지난11월 26일 평불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교대책위는 "진관스님이 영장시효가 만료된 17일~21일 5일간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것은 검찰의 명백한 인권유린이다"며 "안우만 법무부장관, 김기수 검찰총장, 신건수 서울지검공안2부장검사, 이용훈 현 서울지검공안검사 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불교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마음 육신을 아무리 씻어본들

육신을 아무리 씻어본들, 먹을 것 못 먹을 것을 아무리 가려본들 마음보다 더 깨끗하겠는가.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 달력크기/26cm×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주문일부터 5일이내 납품가능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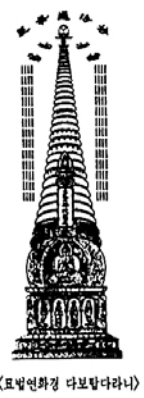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심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백세 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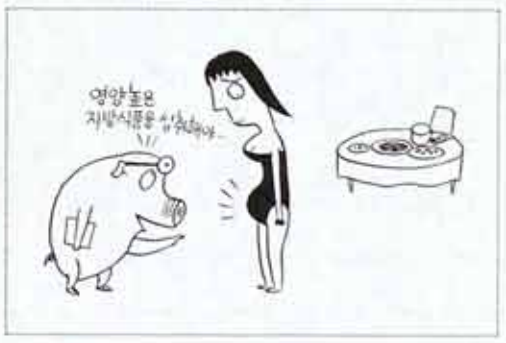
비장(脾臟) ㉯

자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복학(腹虐)'이라하여 어린애들이 아무리 먹어도 살은 찌지않고 얼굴이 누렇고 수척해지며 배만 불러오르고 만성적으로 소화불량된 묽은 대변을 보는 질환이 많았었다.

이런 증상은 만성비장종대를 의미하며 회충등 기생충이 감염시키기도 하는데 일명 '자래가 들었다'고 하여 마치 자라목이 치켜들고 있는 모양처럼 왼쪽 옆구리가 불룩하게 튀어 올라있는 증상이다.

복학, 영양가 높은 음식 먹이면 치료

만성 설사땐 지방질 섭취 삼가야



눈은 황하여 안구돌출(眼球突出)이 된것처럼 되고 배가 아픔을 자주 호소한다.

극도로 허쇠해진 모습은 마치 저개발국의 굶주린 아이처럼 보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때로는 메시꺼움을 호소하며 흙을 먹는 일도있다. 이것은 감증(疳症)이 겸하는 것으로 회충(蛔蟲)등이 자극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자와 같은 단것을 몹시 탐한다. 결핵(結核)이 겸하여 있는 경우도 많아 정밀 진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복부 중앙의 왼쪽을 침을 참깐 찌른후 뺀다든지, 손바닥이나 손마디 안쪽의 근육을 갈라서 '비지' 모양의 이물질을 제거 해주는 소위 '복학'을 때주어 광범하게 치료하는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임상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는것 중의 하나이지만 위생적으로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에 유의하여 전문 한의사의 시술에 의해야 할 것이다. 이 질환은 조악(粗惡)한 음식을 포식하는데서 일어나는 소모성 질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절도있게 먹이고 단것을 피하고 소화에 유의하면 예방과 더불어 치료도 되는 질환이다. 소감건비환(消疳健脾丸)이나 안회조증탕(安蛔調中湯) 같은 약제를 적절하게 복용시키면서 위생적인 식생활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만성설사의 경우 대소장의 흡수기능의 저하나 염증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간(肝) 비(脾) 등의 소화효소분비부전(消化酵素分泌不全)으로 인해 지방분을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데서 일어난다. 지방질을 요령껏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기사넘처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쉽니다.

아들 부처님 ②

주부신행담



그림 · 이준석

"승호의 학교생활이라던가 그 아이의 친구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스님의 질문을 받고 나는 한참을 머뭇거려야 했다.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답답했다. 나는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 했었다. 하기초나 말에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해 봐도 아이는 구김없이 잘 자라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눈에 띄게 결함이 있거나 친구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얻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나는 '승호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멍멍해지는 느낌 밖에 없었던 것이다.

"글쎄요. 학교 잘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집에서도 늘 얌전하고 쾌활한 아이인데 요새들어 못된 친구를 사귄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할말이 없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어떻게 잘 다니고 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자금 보살님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새들어 나쁜 친구를 사귄다는 생각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살님이 생각하는 나쁜 친구들의 부모에게 승호는 좋은 친구일까요?"

갈수록 앞이 캄캄했다. 나는 부끄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했다.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절망이었다. 아무런 대꾸를 못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말을 이으셨다.

"보살님, 저도 학교를 다녔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스님이 되어 있지만 아이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절에 나오는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모범적인 학생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나오는 아이들도 다 고민이 있고 나쁜 길의 유혹도 받습니다. 다만 우리 법우들은 그런 유혹이나 고민을 극복해 내는 지혜를 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이어가는 스님의 얼굴에서 나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러니까 승호도 절에 보내야 겠군요."

"절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이의 몸을 절에 보내 놓고 뭐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몸을 학교에 보내며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여겨 온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까요. 보살님이 승호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참 아까 나쁜 친구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도 다 우리절에 나오게 해야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친구들을 더이상 못 사귀도록 단단히 일러둘 참인데 그 녀석들과 함께 절에 다니게 하다니.

"스님 안돼요. 그 친구들과 절교를 시켜야 해요…"

"아니 보살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의 부모에게는 승호가 나쁜 친구란 말입니다. 다 자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소중하면 아이의 친구들도 소중합니다. 그 나이에는 친구가 부모보다 더 좋은 법입니다. 아들이 부처님이면 친구들은 여러 보살님들입니다.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을 모시듯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내가 얼마나 속좁은 어머니인가를 그날 스님을 통해 배웠다. 내 아이를 부처님으로 여기면 친구들을 보살님으로 여기라는 스님의 충고가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날 법당을 나오기전 부처님께 발원했다. 승호를 절에 보내겠으며 그 친구들도 부처님께 귀의시키겠다는 것과 앞으로는 아이의 어미 노릇을 좀더 잘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는 의미에서 오랫만에 108배를 했다. 다리가 아파왔지만 그간의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이 정도의 아픔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나는 승호를 어떻게 부처님께 귀의시킬 것인가를 두고 생각했다. 갑자기 절이란데로 이끌면 아이가 잘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간 혼자만 절에 다닌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그런 고민은 한날 기우에 불과했다.

이 법 성 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승호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보듬어 주세요
아들이 부처님이면 친구들은 보살들입니다"
스님의 충고가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 Mucus from the nose, through the mouth it ejects at one time bile and at other times it ejects phlegm, and from all the body come sweat and dirt.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가래를 뱉는다. 그리고 온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 Then its hollow head is filled with the brain. A fool led by ignorance thinks it a fine thing.

또 그 머리의 빈 곳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명(無明)에 이끌려서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 And when it lies dead, swollen and livid, discarded in the cemetery, relatives do not care for it.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에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㊿

♦ Dogs eat it and jackals, wolves and worms; crows and vultures eat it, and what other living creatures there are.

개나 재칼 · 여우 · 늑대 ·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 등이 쪼아 먹는다. 또 시체 주변에서 살고 있는 다른 것들 역시 갉아 먹는다.

♦ The Bhikku possessed of understanding in this world, having listened to Buddha's words, he certainly knows it thoroughly , for he sees it as it really is.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mucus (n) (생물체 내의) 점액, 콧물 (=phlegm 점액)
*bile (n) 쓸
*sweat (n) (신체) 땀, 수증기, 물방울, 불안
*hollow (a) 텅 빈, 속이 빈, 공허한, 무의미한
*foul (n) 어리석은 사람(=simpleton), 광대 , .
*ignorance (n) 무지, 무식 (ignoramus think : 바보)
*s은 앞 단어의 'body'를 가르킨다.
*swollen (a) 부은, 팽창한
*livid (a) (멍들어) 검푸른, 흙빛의, 납빛의
*cemetery (n)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묘지
*ghoul (n) (아주와 혹대와의 중간형 야생개) 재칼
*'s'은 'word'를 가리킨다.
*vulture (n) 대머리수리 (독수리의 일종)

오종욱 기자

방바닥을 뜯지않고 보일러가 필요없는 전자동 난방!



당일시공! 당일난방!

동파, 화재, 소음으로부터 완전해방!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따끈이 안전 전자동 온돌판넬

W·B 전자동 온돌판넬의 규격및 사양

항목 종류	W · B 920	W · B 920C	W · B 460L	W · B 460S
외형치수	1700×850×15	1700×850×15	1700×400×15	850×850×15
난방출력	220(W)	220(W)	70(W)	70(W)
전열면적	1.45(㎡)	1.45(㎡)	0.68(㎡)	0.72(㎡)
발열판재질	갈바륨강판	갈바륨강판 (세라믹코팅)	갈바륨강판	갈바륨강판

신속한 설치 · 다양한 용도

• 일반주택 • 호텔 • 숙직실 • 강당 • 화원 • 지하실
• 아파트 • 여관 • 경비실 • 시장 • 축사 • 현장사무실
• 빌딩 • 별장 • 고아원 • 점포 • 교회 • 박물관등
• 사무실 • 병원 • 양로원 • 체육관 • 법당

• 특수주문제작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및 설치비 완전무료!"

경제성
• 보일러가 필요없어 간편하고 경제적입니다.
• 방바닥을 뜯지않아 시공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당일시공, 당일난방으로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 절전형이며 열효율이 높습니다.

편리성
• 전체난방및 부분난방이 자유롭습니다.
• 10분이내에 바닥온도가 원하시는대로 유지됩니다.
•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이동설치가 편리합니다.

안전성
• 남녀노소 누구라도 설치및 사용이 간편합니다.
• 가스, 화재, 동파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 소음이 없어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이 유지됩니다.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무공해



방바닥을 뜯지않고 조립식으로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방 1칸 1시간)

스위치 조작으로 원하는 부분만 난방을 하므로 절전형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므로 편리하고 동파나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소음이 없고 실내가 쾌적합니다.

전국대리점 모집중 ■카드소지자 12개월 장기분할

따끈이 온돌판넬사업부 : (주)잎 새
TEL:(02)792-8005, 792-9131FAX:(02)796-4988